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송정연 · 박근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0-12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An Analysis of Culture, Leisure and Tour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송정연·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송정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임전문위원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전문위원

공동연구

김희경 동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초빙교수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연구개요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1인 가구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615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222만 가구 수준이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급증한 수준임
- 특히 2000년 초반 1인 가구는 여성, 청년층, 노년층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별, 세대별 로 고른 분포를 보임
 - 2000년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과 노년층에 편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임
 - 하지만 2019년 기준 청년층 26.9%, 노년층 25.1%, 장년층 25.4%, 중년층 22.6%로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함
- 이렇듯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경제, 사회, 복지, 주거 분야 외에 여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함
- 하지만 국내 가구 관련 정책은 여전히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 1인 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연구목적

-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참여 특성을 시간에 따른 변화, 다인 가구와의 비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및 여행 참여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문화향유, 여가 및 여행 참여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1. 연구범위 및 체계

가. 연구방법

-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 ~ 2019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1인가구와, 문화여가 및 여행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1인 가구는 통계청에서 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
 -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 문화예술행사 관람활동은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을 의미
 - 여행활동은 행정구역 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국내여행을 의미

나. 연구체계

- 본 연구는 연구 설계 및 방향설정, 선행연구 검토, 분석방안 마련, 데이터셋 구성, 최종 데이터 분석,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의 순서로 진행

2. 1인 가구 현황 및 선행연구

2.1. 1인 가구 현황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가족구성 및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일반적·보편적 가구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615만 가구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
-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크게 증가함
- 또한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2000년 초반 1인 가구는 청년층, 노년층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세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또한 2010년까지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남성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 1인 가구의 감소로 인하여 201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행정구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전반적으로 동 지역이 읍면 지역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행정구역별 1인 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읍면 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이 변화됨에 따라 경제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및 여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됨을 시사함

2.1. 선행연구

가. 1인 가구 관련 전반적 선행연구

-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 변화에 주목하여 소득, 고용,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민홍 외(2015)는 우리나라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그리고 노년층(65세 이상)의 1인 가구 현황과 각 세대별 위험요인을 분석
 - 박미선·이재춘 외(2017)에서는 1인 가구 현황을 제시하고 경제 및 사회, 주택 분야의 향후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김석호·변미리·정병은(2018)는 1인 가구 대상 고용, 건강, 주거에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박미선·조윤지(2020)에서는 1인 가구 대상 고용, 건강, 주거에 분야의 현황

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하여 1인 가구 적절한 관련 분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하지만 성별, 세대별 등 특성을 1차원 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며 모다 세부적인(성별·세대별, 세대별·가구소득별 등)분석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나. 1인 가구 문화·여가 및 여행 관련 선행연구

-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문화·여가 및 여행관련 선행연구 또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최셋별(2014)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의 여가활동 중 문화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
 - 송완구·임지은·도해용(2015)은 1인 가구의 관광 참여 행동에 대하여 분석
- 한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세대별 고려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음
 - 정영금·윤소영(2019)은 1인 가구의 세대별 국내 1인 가구의 여가행태를 분석하고, 이들 가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특성이나 요인을 파악함
 - 김현성·이기영·김강민·이교창·안준형·황재건(2019)에서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문화, 여가 및 여행참여 특성이 다르며, 1인 가구 특성별로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2.3. 소결

-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분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성별, 세대별 등 특성을 1차원 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성별·세대별, 세대별·가구소득별 등)분석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문화·여가 및 여행부문의 연구는 기타 소득, 주거, 복지에 비하여 정책적 접근의 연구가 많지 않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을 일부 참고하되 몇 가지 차별성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 첫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지표’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둘째, 단순히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해, 문화향유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셋째, 단순히 빈도 분석을 통해 현황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문화여가 및 여행참여에 가구원수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넷째, 문화·여가와 여행과 관련된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보다 다양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3. 분석자료

3.1.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유효 응답자는 약 10,000명임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2~2019년 가구원 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국민여가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구분	2012	2016	2018	2019
전체	5,003	10,602	10,498	10,060
1인 가구	209 (4.2%)	467 (4.4%)	1,057 (10.1%)	915 (9.1%)
2인 가구	668 (13.4%)	1,793 (16.9%)	1,771 (16.9%)	2,488 (24.7%)
3인 이상 가구	4,126 (82.5%)	8,343 (78.7%)	7,671 (73.1%)	6,657 (66.2%)

참고: ()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분석 가능한 모든 차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또한 분석 목적에 따라서 분석 대상 기간을 세분화 함
 - 첫째,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의 따른 변화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9년 자료를 모두 활용함
 - 둘째,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에서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6년~2019년 자료를 이용함
 - 셋째, 해당 분석은 두 개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하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유효표본이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약 1,000명 확보할 수 있는 2018~2019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3.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 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임
- 본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실시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2019년 기준 응답자는 약 10,000명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2012~2019년 가구원 수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음

-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각 2012년 215명, 2016년 418명, 2018년 993명, 2019년 966명임

〈표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구분	2012	2016	2018	2019
전체	5,074	10,716	10,558	10,102
1인 가구	215 (4.2%)	418 (3.9%)	993 (9.4%)	966 (9.6%)
2인 가구	644 (12.7%)	1,909 (17.8%)	1,937 (18.3%)	2,462 (24.4%)
3인 이상 가구	4,216 (83.1%)	8,389 (78.3%)	7,629 (72.3%)	6,675 (66.1%)

참고: ()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또한 분석 가능한 모든 차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 기간을 세분화 하였음
 - 첫째,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다인 가구와의 비교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 자료를 이용함
 - 둘째,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에서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6년~2019년 자료를 이용함
 - 셋째, 성별·세대별과 같은 세부특성별 심층분석을 실시할 경우 유효표본이 매우 작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 약 1,000명 확보할 수 있는 2018~2019년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함

3.3. 국민여행조사

- 「국민여행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구 및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민여행조사」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기준 매월 4,00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연간 48,000명을 조사함

- 「국민여행조사」의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다음 <표 3> 과 같음

<표 3> 국민여행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구분	2018	2019
전체	24,154	48,269
1인 가구	3,318 (13.7%)	6,563 (13.6%)
2인 가구	5,900 (24.4%)	11,762 (24.4%)
3인 이상 가구	14,935 (61.8%)	29,944 (62.0%)

참고: ()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여행참여 관련 심층 분석을 위하여 「국민여행조사」의 분석 가능한 2018~2019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함

3.4 문화·여가 및 여행 통계적 매칭자료

-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Methods)은 두 개의 독립적인 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각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데이터를 각각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함
 - 각각의 데이터에 고유식별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매칭은 활용할 수 없으며, 통계적 매칭을 이용하여 분석

가.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매칭

-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고, 「국민여행조사」를 연계파일로 하여 통합파일을 생성하여 분석
 - 선정된 고유변수와 공통변수를 가지고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유일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적합하여, 예측값을 이용하여 성향점수 생성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적합값을 계산하고, 「국민여행조사」에서 적합값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대상을 매칭

나,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활동조사」매칭

-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고, 「국민문화활동조사」를 연계파일로 하여 통합파일을 생성하여 분석
 - 선정된 고유변수와 공통변수를 가지고 「국민문화활동조사」의 유일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적합하여, 예측값을 이용하여 성향점수 생성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적합값을 계산하고, 「국민문화활동조사」에서 적합 값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대상을 매칭

4.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심층분석

1.1 결과 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2년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평일 및 휴일 여가 시간은 각각 약 4시간, 6시간으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이는 다인 가구와의 여가시간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약 3시간, 휴일 약 5시간으로 1시간 가량 차이남
 - 하지만 가구원수가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따라서, 1인 가구가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비교적 여가 시간은 길게 나타나 이 것이 가구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고 휴일 여가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4.6시간으로 남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8시간) 보다 약 1.4배 길게 나타남
- 한편, 모든 요인이 동일한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일 때 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0.1, 휴일 여가시간 0.4시간 더 약간 더 긴 것으로 추정되어 큰 차이가 없음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노년층이 청년층 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비교적 높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
 - 2016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세대별 평일 여가시간은 노년층 1인 가구가 약 5시간, 청년층은 약 3시간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하지만 영향분석 결과, 노년층 1인 가구일 때 보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이 0.5시간 더 짧아져, 그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음
 - 즉, 절대적인 노년층의 평일 여가시간이 청년층 보다 더 길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1인 가구는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평일 여가시간 약 4시간, 휴일 여가시간 6시간으로 파악됨
 - 또한 도시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가구소득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짧고,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함. 특히 가구소득은 다른 특성들 보다 평일 여가시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여가시간은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약 5시간 중반인 반면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 후반 ~ 3시간 초반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작은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 비하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일 여가시간 1.2시간, 휴일 여가시간 1.1시간 더 짧아 다른 특성에 비해 비교적 영향력의 정도가 큼
 - 이러한 소득에 의한 여가시간의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다인 가구보다 더 두드러짐
 - 주된 여가활동이 휴식활동인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약 4시간, 휴일 약 6시간으로 그 외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길게 나타남
 - 또한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 보다 “문화예술활동”이나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짧아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다인 가구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2.2 주요 특징

- 1인 가구의 여가시간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인 가구의 평균 여가시간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1인 가구의 평균 여가시간이 다인 가구 보다 평균 약 한시간 가량 길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는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의 여가 시간 외 기타 활동에 대한 차이로 평균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가구원 수”가 직접적 요인이 될 수는 없음을 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 소득에 의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음
 - 즉, 성별, 세대별 요인에 의해 여가시간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소득은 여가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근로시간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 양적인 측면의 여가활동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됨¹⁾
 - 특히, 소득의 영향은 1인 가구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3인 이상 가구의 경

1) 여가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가사 등 다른 활동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게 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 상 해당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우 근로 소득이 낮더라도 다른 기타 가사 및 육아 등의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특징임
 - 이는 1인 가구 중 휴식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 보다는 문화예술이나 여행 활동과 같은 비교적 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의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단, 여가시간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총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가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참여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여가시간 외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여행활동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변화추세, 다인가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각 활동 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여가의 질적인 참여” 의 관점에서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5.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심층분석

1.1 결과 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2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66.6%로 2012년 대비 24.7%p, 2016년 대비 16.4%p 증가함
 - 특히, 2016~2019년 동안 1인 가구 중 여성(20.8%p), 읍면지역(24.0%p),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9.1%p)인 가구에서 크게 증가함
- (다인 가구와 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인 가구와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66.6%)은 3인 이상 가구의 문화 예술행사 관람률 88.5% 보다 21.9%p 낮음

- 영향분석 결과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인 가구 일 때,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 3%p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간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여성 1인 가구의 문화예술관람률은 2012년 41.2%에서 2019년 61.4%로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성 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성별의 영향은 오히려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노년층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가장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른 특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남
 - 2019년 노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1.8%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타남(2019년 기준 청년층과 노년층 격차는 54.5%p)
 - 또한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은 각각 41.9%p, 24.0%p, 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며 이러한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큼
 - 즉,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청년층이 노년층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의 증가(27.4%p)보다 1인 가구(41.9%p)가 더 크게 차이남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문화예술관람률이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9년 56.3%로 2012년(32.3%)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대도시(71.3%p)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1인 가구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문화예술행사관람에 참여할 가능성이 3.9%p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관람률은 50.8%로 2012년(31.7%)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높은 가구 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9.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3인 이상 가구의 추정결과와 상반됨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보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이 4.8%p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여가 참여 유형별)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별 분석결과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매우 적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5.5%로 1인 가구 전체 관람률 수준(66.6%)에 21.1%p 낮아 크게 차이 남
 - 또한 “문화예술활동”과 “사회활동”,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각각 20.6%p, 8.1%p, 7.2%p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2.2 주요 특징

-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인 가구와의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 이후 약 60대 이상을 기록하고 2012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3인 이상 가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임(21.9%p 차이)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인 가구 일 때,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 3%p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취약한 가운데 세대별 특성에 따라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음
 - 이는 1인 가구의 노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그리고 3인 이상의 노년층에 비해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크게 나타남. 즉,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노년층 다인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참여에 더 취약하다고 한 것으로 보여짐
 - 이는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 외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같은 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참여를 위한 동반자가 다인 가구에 비해 없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중 휴식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 비교적 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의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6. 1인 가구의 여행활동 심층분석

1.1 결과 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8년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11.0일로 2019년 11.7시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이는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약간 낮은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행일수는 약 14일로, 1인 가구의 여행일수(약 12일)보

다 약간 높음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약 1.1일 여행일수가 약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성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길지만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남성 1인 가구는 12.8일로 여성 1인 가구 10.7일 보다 약 1.2배 길게 나타남
 - 한편,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남성이 여성 보다 여행일수가 1.3일 짧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에 여행일수는 노년층이 다른 청년층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다른 특성에 미하여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임
 -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7.3일로 청년 1인 가구(15.2일), 중년 1인 가구(14.1일) 약 2배, 장년 1인 가구(10.9일)와 약 1.5배 차이
 - 또한 모든 요인을 통제한 경우,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여행일수는 1.9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여행 참여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3인 이상의 가구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임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도시규모에 따라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대도시 1인 가구 11.6일, 읍면지역 1인 가구 10.4일로 차이가 크지 않음
 - 하지만 앞선 영향분석 결과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읍면 지역거주자 보다 여행일수가 1.5일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는 여행일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일수가 가장 길고,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여행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2019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7.6일로,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는 15.1일로 2배 가량 차이남

- 하지만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여행일수가 1.8일 길어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휴식활동하는 경우 기타 활동에 비하여 비교적 짧게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반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행일수는 2018년 10.2일 2019년 10.6일로 다른 활동에 비하여 짧게 나타남
 - 하지만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2 주요 특징

- 1인 가구의 여행일수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1일로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약간 낮은 수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행일수는 약 14일로, 1인 가구의 여행일수(약 12일)보다 약간 높음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약 1.1일 여행일수가 약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읍면지역,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행일수가 비교적 짧게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세대에 따라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음
 -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여행일수가 짧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여행 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노년층의 여행일수가 청년층에 비해 짧았으며, 이는 다른 특성에 비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이 특징임
 - 또한 3인 이상의 다인 가구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다른 결과임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여행일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
 - 이는, 여행활동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휴식활동도 포함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들(예. 레저 스포츠, 문화활동) 모두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측됨

7. 결론 및 한계점

7.1 결론

-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지표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여가시간’, ‘여행일수’의 변화추세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참고 <표 4>)

<표 4>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분석 주요결과 요약

구분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여행일수
1인 가구 변화추세분석 (2012~2019)	비슷한 수준 유지	증가	비슷한 수준 유지
다인 가구와 비교 (2016~2019)	유의미한 차이 없음	다인 가구보다 낮은 수준	유의미한 차이 없음
1인 가구 특성별 분석 (2016~2019)	월평균 가구소득 영향이 큼	세대별 영향이 큼	세대별 영향이 큼
성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이 더 참여함	남성이 여성보다 짧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
세대별	청년층이 가장 짧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함	노년층이 가장 취약함
도시규모	유의미한 차이 없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대도시가 약간 더 길지만 큰 차이 없음
월평균 가구 소득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음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취약함	유의미한 차이 없음
여가유형별 분석 (2018~2019)	휴식활동을 주로하는 경우 비교적 길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비교적 낮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7.2 한계점

- 본 연구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와 이를 매칭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함
 - 첫째, 세부 특성이나 여가활동별로 분석 할 경우, 유효표본수가 작아 대표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움
 - 둘째, 분석 시 고려되어야할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셋째, 영향분석 시, 주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참여 활동, 여행일수는 동시관계(simultaneous relation)가 있으므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넷째,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수로 규모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별 분석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체계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체계	10
제2장 1인 가구 현황 및 선행연구	11
제1절 1인 가구 현황	13
제2절 선행연구	18
1. 1인 가구 관련 전반적 선행연구	18
2. 1인 문화·여가 및 여행 전반적 선행연구	19
제3절 소결	22
제3장 분석자료	25
제1절 국민여가활동조사	27
1. 조사개요	27
2. 기초통계량	28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30
제2절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32
1. 조사개요	32
2. 기초통계량	33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35
제3절 국민여행조사	37

1. 조사개요	37
2. 기초통계량	38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40
제4절 문화·여가 및 여행 통계적 매칭자료	41
1. 통계적 매칭 활용 방법	41
2.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매칭	43
3.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활동조사」 매칭	44
제4장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심층 분석	47
제1절 여가시간 현황분석	49
1. 변화 추세	49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50
3. 특성별 분석	50
제2절 여가시간 영향분석	69
1. 분석방법	70
2. 분석결과	71
제3절 소결	77
1. 결과요약	77
2. 주요특징	79
제5장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심층 분석	81
제1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현황분석	83
1. 변화 추세	83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84
3. 특성별 분석	84
제2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영향분석	99
1. 분석방법	99
2. 분석결과	102
제3절 소결	107
1. 결과요약	107
2. 주요특징	109

제6장 1인 가구의 여행활동 심층 분석	111
제1절 여행일수 현황분석	113
1. 변화 추세	113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113
3. 특성별 분석	114
제2절 여행일수 영향분석	127
1. 분석방법	127
2. 분석결과	129
제3절 소결	133
1. 결과요약	133
2. 주요특징	135
제7장 결론 및 한계점	137
제1절 결론	139
제2절 한계점	142
참고문헌 /	145
ABSTRACT /	147

표 목차

〈표 1-1〉 문화예술활동 정의 및 구분	6
〈표 1-2〉 여가활동 정의 및 구분	7
〈표 1-3〉 국내여행 정의 및 구분	8
〈표 1-4〉 연령대별 세대 정의 및 구분	9
〈표 1-5〉 연령대별 세대 정의 및 구분	9
〈표 2-1〉 가구원 수 변화 (단위: 천 가구)	14
〈표 2-2〉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15
〈표 2-3〉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만 가구)	16
〈표 2-4〉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만 가구)	17
〈표 3-1〉 국민여가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28
〈표 3-2〉 국민여가활동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28
〈표 3-3〉 국민여가활동조사 -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29
〈표 3-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33
〈표 3-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34
〈표 3-6〉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35
〈표 3-7〉 국민여행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38
〈표 3-8〉 국민여행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38
〈표 3-9〉 국민여행조사 -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39
〈표 4-1〉 가구원수 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50
〈표 4-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52
〈표 4-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55
〈표 4-4〉 가구원수별·여가활동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56
〈표 4-5〉 성별·세대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58
〈표 4-6〉 성별·도시규모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60
〈표 4-7〉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62
〈표 4-8〉 세대별·도시규모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시 간)	63
〈표 4-9〉 세대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65

〈표 4-10〉 도시규모별·월평균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68
〈표 4-11〉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 OLS 분석 결과	75
〈표 5-1〉 가구원수 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단위: %)	84
〈표 5-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86
〈표 5-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88
〈표 5-4〉 가구원수별·여가활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0
〈표 5-5〉 성별·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1
〈표 5-6〉 성별·도시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3
〈표 5-7〉 성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4
〈표 5-8〉 세대별·도시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5
〈표 5-9〉 세대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6
〈표 5-10〉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98
〈표 5-1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프로빗 분석 결과	105
〈표 6-1〉 가구원수 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14
〈표 6-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16
〈표 6-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17
〈표 6-4〉 가구원수별·주 여가활동 유형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18
〈표 6-5〉 성별·세대별 평균 여행 일수	120
〈표 6-6〉 성별·도시규모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21
〈표 6-7〉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22
〈표 6-8〉 세대별·도시규모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22
〈표 6-9〉 세대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124
〈표 7-1〉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분석 주요결과 요약	14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10
[그림 2-1] 가구원 수 변화	13
[그림 2-2] 연도별 1인 가구 규모(2000년 ~ 2019년)	14
[그림 2-3] 가구원 수 변화	15
[그림 2-4] 가구원 수 변화	16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가족구성 및 가구 형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615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222만 가구 수준이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급증한 수준임
- 특히 2000년 초반 1인 가구는 여성, 청년층, 노년층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별, 세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2000년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과 노년층에 편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임
 - 하지만 2019년 기준 청년층 26.9%, 노년층 25.1%로, 장년층 25.4%, 중년층 22.6%로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함
- 이렇듯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경제, 사회, 복지, 주거 분야 외에 여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함
 - 경제적 측면에서 소포장 제품, 플랫폼 기반 배달 서비스, 온라인 판매시장 등의 산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 측면에서 오피스텔, 공유형 주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여가 측면에서는 개인선호와 편리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타인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함

- 하지만 국내 가구 관련 정책은 여전히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 1인 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비록 1인 가구관련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 청년층, 노년층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25일 1인 가구의 기본생활보장과 주거의 안정성 확보, 1인 가구 관련 신산업(Solo-Economy)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인 가구 증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따라서 문화정책 또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참여 특성을 시간에 따른 변화, 다인 가구와의 비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참여활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다인가구와의 비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변화하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
-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및 여행 참여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하여 1인 가구의 주요 여가활동에 따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및 여행 참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문화향유, 여가 및 여행 참여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체계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 단, 국민여가조사와 문화향수활동조사의 경우 제주도는 2012년부터 세종시는 2014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함

나. 시간적 범위

-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 ~ 2019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단, 분석에 사용하는 조사의 특성에 따라 마다 시간적 범위에 차이가 있음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격년 조사로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 매년 조사로 변경되어 현재 2019년 결과 공표
 -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도에 조사체계와 방법이 변경되어, 현재 2019년 결과 공표
 - 최종적으로 문화예술활동과 국민여가활동 분석은 2012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설정¹⁾
 - 국민여행 관련 분석은 2017년 까지 자료와 최신 2018~2019년 자료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2018년~ 2019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

1) 2014년의 경우 1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부재하여 해당 연구에서 제외함

다. 내용적 범위

1) 1인 가구 정의

- 본 연구의 대상은 1인 가구는 통계청에서 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

2) 문화, 여가 및 여행활동 정의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여행 참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 3종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을 분석 자료로 활용함
-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관람활동, 국민여가활동, 국민여행의 정의의과 구분은 해당 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함

① 문화예술관람활동

-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세부적 활동내용은 다음 <표 1-1> 와 같음

<표 1-1> 문화예술활동 정의 및 구분

구분	구분 내용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행사
미술전시회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 등을 전시하는 행사
서양음악	서양의 전통적 작곡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주는 행사 또는 오페라
전통예술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
연극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행사
뮤지컬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음악극과 같이 음악·노래·무용을 결합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무용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여 육체의 내적·외적 행동을 통해 감정·정경·상황 등을 표현하는 예술 행사(예: 발레, 춤)
영화	연결된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해 재현시킨 움직이는 영상(TV 제외)
대중음악, 연예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유행가)을 공연하는 행사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

② 여가활동

-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하며 다음 총 개 8유형으로 구분

〈표 1-2〉 여가활동 정의 및 구분

구분	구분 내용
문화예술관람활동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연극공연 관람 무용공연 관람 영화보기 연예공연 관람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행사 참여 글짓기, 특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구, 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 춤, 무용
스포츠관람활동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구경만)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경기 직접관람 스포츠경기 간접관람 격투기경기 관람 온라인게임경기 현장관람
스포츠참여활동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기종목(농구, 축구 등) 테니스, 스쿼시 당구, 포켓볼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수상운동 설상운동 빙상운동 헬스,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테보 배드민턴, 줄넘기 스트레칭, 홀라후프 육상, 조깅, 속보 격투기스포츠 댄스스포츠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인사인스케이트 승마, 암벽등반 철인3종, 서바이벌
관광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활동(상주목적이거나 영리추구 목적은 제외)으로 낯선 지역의 풍경·풍습·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 산림욕 국내캠핑 해외여행 소풍 및 야유회 온천 및 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놀이동산 동물원, 식물원 방문 지역축제참가 자동차드라이브
취미오락활동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 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활동 생활공예 요리하기, 다도 반려동물보기 노라방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미니홈피, 블로그관리 인터넷검색, 채팅 SNS, UCC 제작 게임 보드게임, 퍼즐맞추기 바둑, 장기, 체스 캠블, 복권구입 쇼핑외식 음주 독서, 만화보기 미용 어학 공부 및 학원 이용 기술, 자격증 공부 및 학원 이색테마카페 체험 원예

구분	구분 내용
휴식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기분전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및 걷기 • TV 시청 • 음악감상 • 목욕, 사우나, 찜질방 • 모바일 콘텐츠 시청 • 신문,잡지보기 • 낮잠 • 라디오, 팟캐스트 청취 • 아무것도 안하기
사회 및 기타활동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활동 • 가족 및 친지방문 • 친구만남, 데이트, 소개팅 • 종교활동 • 잡담, 통화, 문자 • 동호회 모임 • 클럽, 나이트 등 • 계모임, 동창회 등 • 기타 여가활동

자료: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③ 국내여행

- 여행활동은 행정구역 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 온 모든 국내여행을 의미
- 단, 단순식사, 쇼핑, 영화감상 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 또는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의 산책, 등산, 취미, 교양생활, 스포츠 등의 일상적이며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제외
- 구체적으로 관광활동의 범위는 다음 <표 1-3>과 같이 구분됨

<표 1-3> 국내여행 정의 및 구분

구분	구분 내용
관광·휴양 활동 방문	심신의 단관광 및 휴양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자연감상, 산책 • 레포츠 활동 • 종교 및 순례 • 박물관, 미술관 방문 • 스포츠 관람 • 건강·치유 여행 • 동물원, 식물원 방문 • 온천, 낚시·크루즈 • 인센티브 관광 • 수족관, 테마파크 방문 • 캠핑 • 콘서트·영화·연극 • 해수욕, 트레킹·등산 • 체험학습 / 수학여행 • 감상 겸 나들이 • 에코 투어 • 이벤트·축제 참가 • 맛집 투어를 겸 나들이 •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 • 신혼여행 • 쇼핑을 겸 나들이
가족·친구·친지 방문	가족 및 친구, 친지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의 여행활동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귀성 • 결혼식 • 집들이 등 • 가족행사 • 장례식
출장·업무 방문	출장 및 업무를 목적으로 타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및 세미나 • 자원 봉사 활동 • 시찰, 취재 • 회의, 대회, 학회 • 본사, 지점 공장등 방문 • 강연, 연주회 개최·출연 • 컨벤션, 박람회, 전시회 • 거래처 방문 • 프로스포츠 활동 • 연구, 교육활동 • 건설, 토목 등 감독 • 기타 업무 목적 모든활동

자료: 2019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3) 개인 및 가구 특성 정의

- 1인 가구의 특성별 분석을 위하여 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① 성별

- 특성분석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② 세대별

- 연령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

〈표 1-4〉 연령대별 세대 정의 및 구분

구분	구분 내용
청년층	만 18세 - 34세,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
중년층	만 35세 - 49세,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장년층	만 50세 - 64세, 경제활동 후반기
노년층	만 65세 이상, 은퇴 직후부터 노인의 공식적인 시작점

③ 도시 규모별

- 행정지역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로 구분함

〈표 1-5〉 연령대별 세대 정의 및 구분

구분	구분 내용
대도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중소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읍·면 지역 제외)
읍·면	읍 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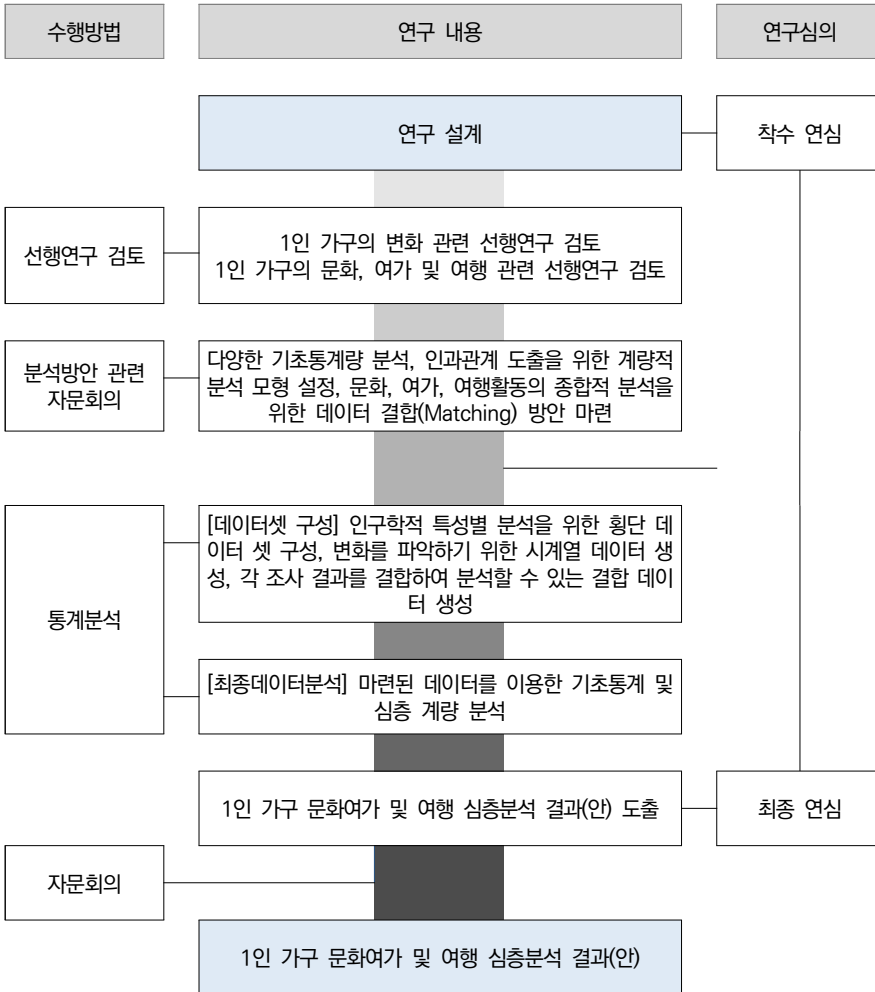
④ 월평균 가구소득별

-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인 가구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정의

2. 연구 체계

- 본 연구는 연구 설계 및 방향설정, 선행연구 검토, 분석방안 마련, 데이터셋 구성, 최종 데이터 분석,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의 순서로 진행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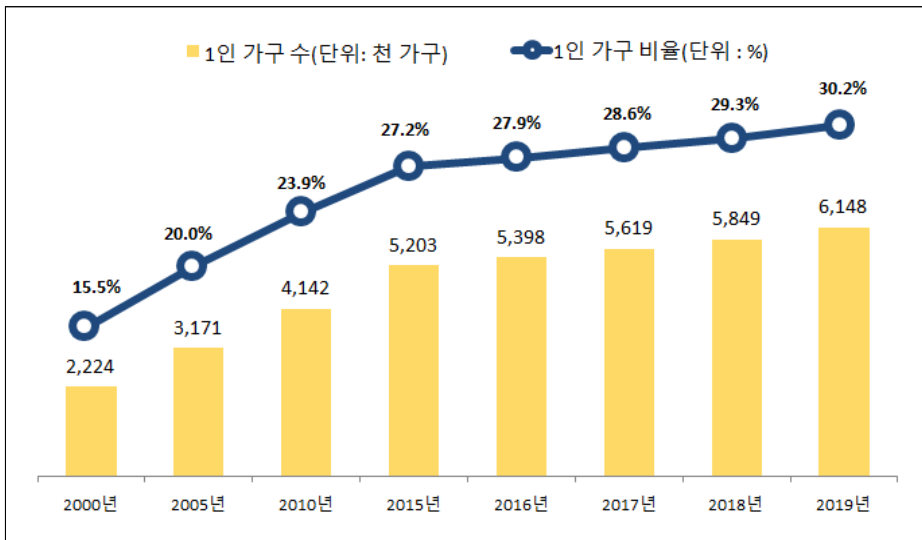
제2장

1인 가구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1인 가구 현황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가족구성 및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일반적·보편적 가구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615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222만 가구 수준이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급증한 수준임
 - 또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4인 가구의 비중 보다 높아졌고, 2019년 30.2%로 증가함

[그림 2-1] 가구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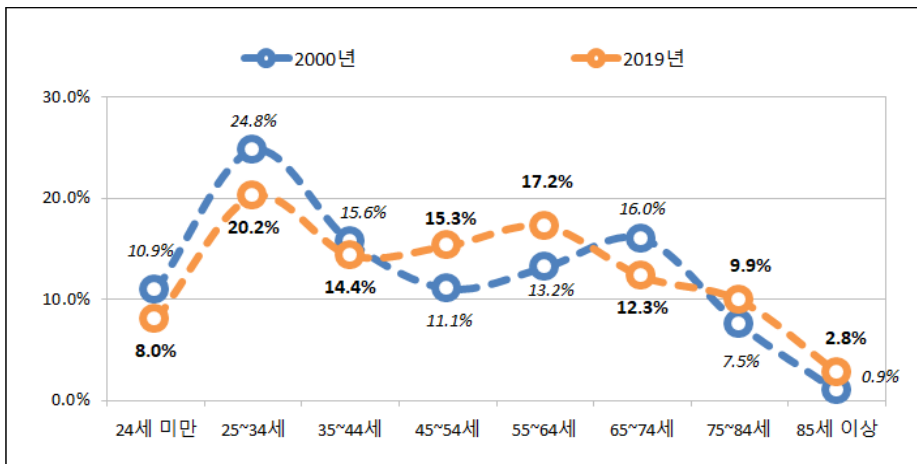
〈표 2-1〉 가구원 수 변화 (단위: 천 가구)

가구원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인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7.2%)	5,398 (27.9%)	5,619 (28.6%)	5,849 (29.3%)	6,148 (30.2%)
2인	2,731 (19.1%)	3,521 (22.2%)	4,205 (24.3%)	4,994 (26.1%)	5,067 (26.2%)	5260 (26.7%)	5,446 (27.3%)	5,663 (27.8%)
3인	2,987 (20.9%)	3,325 (20.9%)	3,696 (21.3%)	4,101 (21.5%)	4,152 (21.4%)	4,179 (21.2%)	4,204 (21.0%)	4,218 (20.7%)
4인	4,447 (31.1%)	4,289 (27.0%)	3,898 (22.5%)	3,589 (18.8%)	3,551 (18.3%)	3,474 (17.7%)	3,396 (17.0%)	3,300 (16.2%)
5인 이상	1,922 (13.4%)	1,582 (10.0%)	1,398 (8.1%)	1,224 (6.4%)	1,200 (6.2%)	1,142 (5.8%)	1,085 (5.4%)	1,014 (5.0%)

참고: ()는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 특히 2000년 초반 1인 가구는 청년층, 노년층과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세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
 - 2000년 1인 가구의 25~34세 비율이 2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5~74세 16.0%로 청년과 노년층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19년 기준 45세~64세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함

[그림 2-2] 연도별 1인 가구 규모(2000년 ~ 2019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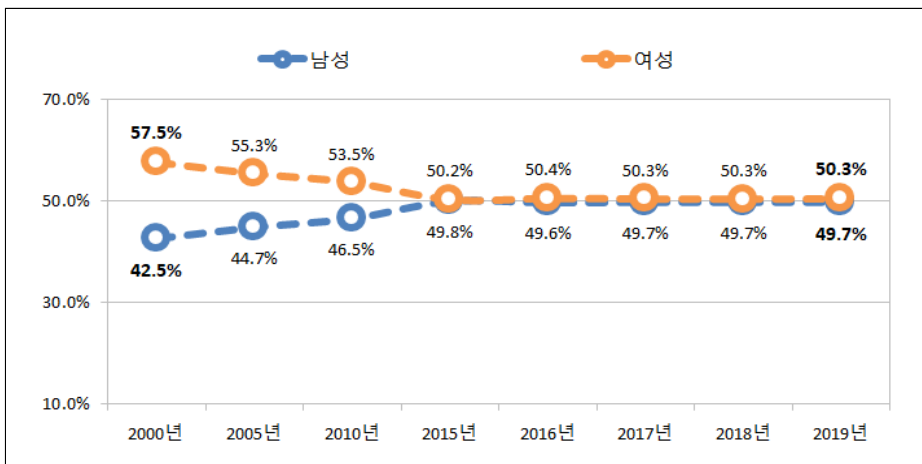
〈표 2-2〉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세 미만	10.9%	9.8%	7.7%	8.2%	8.4%	8.1%	7.9%	8.0%
25~34세	24.8%	24.4%	22.2%	20.2%	19.6%	19.3%	19.5%	20.2%
35~44세	15.6%	15.8%	16.4%	16.3%	15.5%	15.3%	14.9%	14.4%
45~54세	11.1%	13.5%	15.4%	16.4%	16.0%	15.8%	15.6%	15.3%
55~64세	13.2%	11.7%	12.6%	15.4%	16.5%	17.1%	17.4%	17.2%
65~74세	16.0%	14.9%	13.8%	12.0%	12.0%	12.0%	12.1%	12.3%
75~84세	7.5%	8.6%	10.1%	9.3%	9.6%	10.0%	10.0%	9.9%
85세 이상	0.9%	1.1%	1.8%	2.2%	2.4%	2.5%	2.6%	2.8%

- 또한 2010년까지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남성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 1인 가구의 감소로 인하여 201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00년 기준 1인 가구 중 여성이 57.5%, 남성 42.5%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9년 기준 2019년 기준 남성 49.7%, 여성 50.3%로 양적인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임

[그림 2-3] 가구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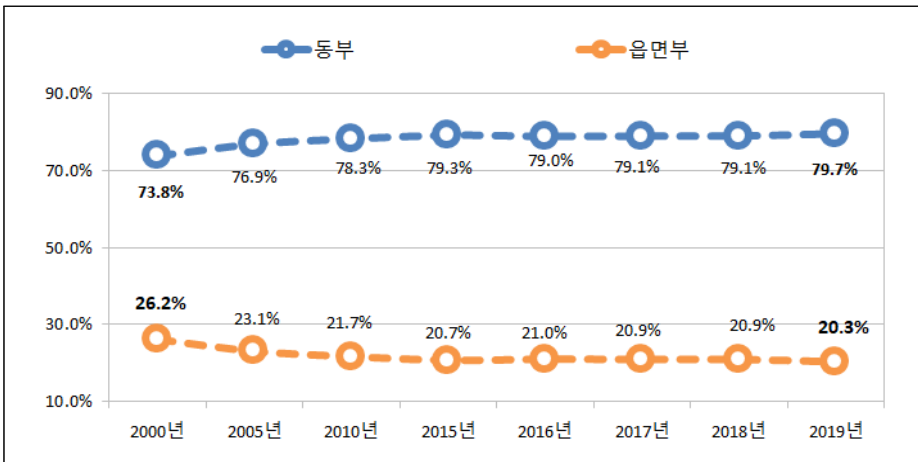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2-3〉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만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성	42.5%	44.7%	46.5%	49.8%	49.6%	49.7%	49.7%	49.7%
여성	57.5%	55.3%	53.5%	50.2%	50.4%	50.3%	50.3%	50.3%

- 행정구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전반적으로 동 지역이 읍면 지역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기준 동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73.8%로 읍면부(26.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2019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음
- 한편 행정구역별 1인 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읍면 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동 지역의 1인 가구는 79.7%로 2000년 대비 약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9년 읍면 지역의 1인 가구는 20.3%로 2000년에 비하여 약 5.8%p 감소하였음

[그림 2-4] 가구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2-4〉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만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동부	73.8%	76.9%	78.3%	79.3%	79.0%	79.1%	79.1%	79.7%
읍면부	26.2%	23.1%	21.7%	20.7%	21.0%	20.9%	20.9%	20.3%
읍부	8.1%	8.0%	8.4%	8.6%	8.8%	8.9%	9.2%	9.2%
면부	18.0%	15.1%	13.3%	12.1%	12.2%	12.1%	11.7%	11.2%

-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이 변화됨에 따라 경제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및 여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됨을 시사함
- 하지만 국내 가구 관련 정책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제2절 선행연구

1. 1인 가구 관련 전반적 선행연구

- 1절에서 언급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 변화에 주목하여 소득, 고용,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민홍 외(2015)는 우리나라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그리고 노년층(65세 이상)의 1인 가구 현황과 각 세대별 위험요인을 분석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활용
 - 분석결과 소득과 고용, 건강 및 주거환경에서 세대 공통적인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각 세대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과 강도의 차별성이 발견됨
 - 이를 토대로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박미선·이재춘 외(2017)에서는 1인 가구 현황을 제시하고 경제 및 사회, 주택 분야의 향후 정책 방안을 제안함
 - 해당 연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하여 1인 가구의 경제·사회·주거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1인 가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함
 - 또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성별,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함
 - 이를 바탕으로 포용성, 통합성, 부담 가능한 저렴 주택 공급, 적정 주택 기준 마련 등 의 정책방안을 도출함

- 김석호·변미리·정병은(2018)는 1인 가구 대상 고용, 건강, 주거에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분석결과 소득과 고용, 건강 및 주거환경에서 세대 공통적인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각 세대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과 강도의 차별성이 존재함을 밝힘
 - 이를 토대로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박미선·조윤지(2020)에서는 1인 가구 대상 고용, 건강, 주거에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등 하나의 특성별 분석이 아닌 '성별·연령대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함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하여 1인 가구에 적절한 관련 분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하지만 성별, 세대별 등 특성을 1차원 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성별·세대별, 세대별·가구소득별 등)분석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2. 1인 문화·여가 및 여행 전반적 선행연구

-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문화·여가 및 여행관련 선행연구 또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최섯별(2014)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의 여가활동 중 문화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
 - 해당 연구는 2013년 <고립과 단절의 사회, 그 사회적 원인과 대응> 연구단이 실시한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자료 중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를 묻는 문항들을 토대로 문화활동 참여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 분석결과 1인 가구의 문화 활동 참여 점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 활동 참여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 지역규모,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가구계층별 평균분석 결과, 각 집단별 평균점수의 편차는 1인 가구 내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
 - 문화 활동 참여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지역규모, 본인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계층은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문화 활동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송완구·임지은·도해용(2015)은 1인 가구의 관광 참여 행동에 대하여 분석
 - 해당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관광참여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 이를 위하여, 우선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연간 여행횟수, 일수, 지출액을 비교하여 양 집단이 관광 참여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간 여행횟수, 일수,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1인 가구 내의 관광 참여 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1인 가구 세분화 방향을 제시함
 - 분석결과,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관광 참여 행동의 차이에서는 여행횟수, 여행 일수, 여행비용, 동반자수 등의 관광 참여 행동이 연간, 1회당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더 오래 다니며,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집단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1인 가구 내의 군집화와 시장세분화의 가능성을 제시함

- 한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세대별 고려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음
- 정영금·윤소영(2019)은 1인 가구의 세대별 국내 1인 가구의 여가행태를 분석하고, 이들 가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특성이나 요인을 파악함
 - 분석을 위해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1인 가구 1인 가구 1,1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 세대(만 15~23세) 74명, 예코세대(만 24~37세) 288명, X세대(만 38~53세) 154명, 베이비붐세대(만 54~61세) 104명, 노년세대(만 62~83세) 524명의 다섯 세대로 분류하여 분석
 - 다양한 레저 특성, 즉 레저 조건, 레저 참여 정도, 업무 레저 균형 수준, 참여 지속성, 활동 유형 등을 세대에 걸쳐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세대 간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특성과 여가 요인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 김현성·이기영·김강민·이교창·안준형·황재건(2019)에서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해당 연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한 「부산지역 1인 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년층(40대, 50대) 4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함
 - 연구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배우자 유무 그리고 학력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차이가 있었음
 -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사회관계망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로 확인됨
 - 분석 결과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특화된 사회연결망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가활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문화, 여가 및 여행참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 또한 1인 가구의 세대별로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제3절 소결

- 1인 가구의 증가와 특성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분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화에 주목하여 미시적 분류에 따라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가구 규모에 맞는 맞춤형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하지만 성별, 세대별 등 특성을 1차원 적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성별·세대별, 세대별·가구소득별 등)분석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여가 부문에서는 정영금·윤소영(2019)에서 1인 가구의 세대별로 분석함
 - 주거 관련 분야에서는 박미선·조윤지(2020)에서는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로 분석함
 - 하지만 그 외, 도시규모나 소득별 분석 등을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함
- 또한 문화·여가 및 여행부문의 연구는 기타 소득, 주거, 복지에 비하여 정책적 접근의 연구가 많지 않음
 - 1인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책 연구는 시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을 일부 참고하되 몇 가지 차별성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 첫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지표’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중 하나로 ‘문화

예술행사관람률', '여가시간', '국내여행일수' 등을 활용함

-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둘째, 단순히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해, 문화향유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기존 연구의 경우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의 세부 분석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별 분석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별, 소득별 분석과 성별·세대별, 도시규모별·소득대별 등 보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의 계층을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셋째, 단순히 빈도 분석을 통해 현황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문화여가 및 여행참여에 가구원수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기존 빈도분석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현재 기본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단순 빈도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도 분석에 적합한 계량 모형을 설정하여 인구특성과 가구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여가활동에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 등의 변화 등에 대한 방향성 제시하고자 함

■ 넷째, 문화·여가와 여행과 관련된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연구의 경우, 문화, 여가, 여행 부문의 조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그리고 「국민여행조사」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 셋(Data Set)으로 구성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여가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함

- 이러한 통합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주된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즉,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활동, 여행활동, 휴식활동, 참여에 따라서 문화예술관람률, 여가시간, 여행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3장

분석자료

제1절 국민여가활동조사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통계인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함
- 이에 본 절에서는 첫째, 분석에 사용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둘째, 해당 통계의 가구원수와 개인 및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여 셋째, ‘1인 가구’ 대상의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지 즉, 충분한 유효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자료의 활용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²⁾

1. 조사개요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가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와 관련하여 ‘평일 및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임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유효 응답자는 약 10,000명임
 - 2012년 5,000명(제주도 포함), 2014년 10,000명(세종시 포함)으로 표본크기와 조사범위가 확대되었고, 조사주기는 2019년 2년에서 1년으로 개편됨

2)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효표본 확보가 필수적임

2. 기초통계량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2012~2019년 가구원 수 분포는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국민여가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구분	2012	2016	2018	2019
전체	5,003	10,602	10,498	10,060
1인 가구	209 (4.2%)	467 (4.4%)	1,057 (10.1%)	915 (9.1%)
2인 가구	668 (13.4%)	1,793 (16.9%)	1,771 (16.9%)	2,488 (24.7%)
3인 이상 가구	4,126 (82.5%)	8,343 (78.7%)	7,671 (73.1%)	6,657 (66.2%)

참고: 0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2016~2019년 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다음 <표 3-2>와 같음
 - 1인 가구의 성별 응답자 수는 2016년 남성 173명, 여성 293명, 2018년 남성 491명 여성 566명, 2019년 남성 434명, 여성 481명으로 150명 이상의 표본 확보가 가능함
- 2016~2019년 세대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 또한 다음 <표 3-2>에 제시됨
 - 1인 가구의 세대별 응답자 수는 2016년 기준 노년층의 경우 247명으로 비교적 많으나 중년층과 장년층 각각 43명, 59명으로 통계적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8~2019년은 최소 126명 ~ 최대 474명임 비교적 표본수가 많은 수준임

<표 3-2> 국민여가활동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467 (100.0%)	1,793 (100.0%)	8,343 (100.0%)	1,057 (100.0%)	1,771 (100.0%)	7,671 (100.0%)	915 (100.0%)	2,488 (100.0%)	6,657 (100.0%)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성 별	남성	173 (37.1%)	870 (48.6%)	4,225 (50.6%)	491 (46.4%)	838 (47.4%)	3,912 (51.0%)	434 (47.4%)	1,301 (52.3%)	3,288 (49.4%)
	여성	293 (62.9%)	922 (51.5%)	4,118 (49.4%)	566 (53.6%)	932 (52.7%)	3,759 (49.0%)	481 (52.6%)	1,187 (47.7%)	3,369 (50.6%)
세 대 별	청년층	115 (24.7%)	160 (9.0%)	2,598 (32.8%)	289 (27.3%)	168 (9.5%)	2,229 (30.6%)	227 (25.0%)	288 (11.7%)	1,989 (31.7%)
	중년층	43 (9.3%)	126 (7.1%)	2,785 (35.2%)	126 (12.0%)	122 (6.9%)	2,691 (36.9%)	154 (17.0%)	345 (14.0%)	2,238 (35.7%)
	장년층	59 (12.7%)	573 (32.3%)	2,051 (25.9%)	166 (15.8%)	634 (35.9%)	1,968 (27.0%)	191 (21.1%)	887 (36.0%)	1,620 (25.9%)
	노년층	247 (53.3%)	916 (51.6%)	485 (6.1%)	474 (44.9%)	842 (47.7%)	406 (5.6%)	334 (36.9%)	944 (38.3%)	419 (6.7%)

참고: ()는 가구원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 2016~2019년 도시규모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표 3-3>과 같음
 -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2016년 최소 100명 이상, 2018~2019년의 경우 는 두 배인 최소 200명 이상임
- 2016~2019년 월평균 가구소득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또한 다음 <표 3-3>에 제시함
 -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응답자 수는 2016년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는 100명 미만으로 다소 작으며, 그 외 2018~2019년 최소 173명 ~ 최대 337명으로 나타남

<표 3-3> 국민여가활동조사 -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467 (100.0%)	1,793 (100.0%)	8,343 (100.0%)	1,057 (100.0%)	1,771 (100.0%)	7,671 (100.0%)	915 (100.0%)	2,488 (100.0%)	6,657 (100.0%)
도 시 구 모	대도시	162 (34.8%)	718 (40.0%)	3,815 (45.7%)	490 (46.4%)	654 (36.9%)	3,386 (44.1%)	334 (36.6%)	913 (36.7%)	3,047 (45.8%)
	중소도시	162 (34.8%)	562 (31.3%)	3,286 (39.4%)	349 (33.1%)	623 (35.2%)	3,025 (39.4%)	341 (37.3%)	876 (35.2%)	2,530 (38.0%)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읍면	142 (30.5%)	513 (28.6%)	1,242 (14.9%)	217 (20.5%)	493 (27.9%)	1,260 (16.4%)	239 (26.2%)	698 (28.1%)	1,080 (16.2%)
월 평 균	100만원 미만	219 (46.9%)	245 (13.7%)	38 (0.5%)	322 (30.5%)	192 (10.8%)	26 (0.3%)	337 (36.8%)	271 (10.9%)	52 (0.8%)
	100만원대	96 (20.5%)	524 (29.2%)	137 (1.6%)	229 (21.7%)	415 (23.4%)	95 (1.2%)	173 (18.9%)	451 (18.1%)	133 (2.0%)
가 구 소 득	200만원대	89 (19.1%)	450 (25.1%)	778 (9.3%)	274 (25.9%)	420 (23.7%)	630 (8.2%)	207 (22.6%)	584 (23.5%)	558 (8.4%)
	300만원 이상	63 (13.5%)	573 (32.0%)	7,390 (88.6%)	232 (21.9%)	743 (42.0%)	6,920 (90.2%)	199 (21.7%)	1,182 (47.5%)	5,915 (88.8%)

참고: 0는 가구원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심층 분석을 위하여 「국민여가활동조사」의 분석 가능한 모든 차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또한 분석 목적에 따라서 분석 대상 기간을 세분화 함
- 첫째,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의 따른 변화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9년 자료를 모두 활용함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각 2012년 209명, 2016년 467명, 2018년 1,057명, 2019년 915명으로 통계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참고: <표 3-1>)
- 둘째,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에서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6년~2019년 자료를 이용함
 - 201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209명으로 이를 대상으로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분리하는 경우 통계적 검정력을 갖기 위한 충분한 유효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함
- 셋째, 해당 분석 또한 두 개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하나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보다 유효표본이 더 작아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약 1,000명 확보할 수 있는 2018~2019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가령 2016년 기준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43명으로 이를 소득별로 다시 분
석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워 유의미한 통계적 해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참고: <표 3-2>)

제2절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가 활동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람 참여 관련 분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통계인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함
- 본 절에서는 앞선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첫째, 분석에 사용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소개하고 둘째, 관련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여 셋째, '1인 가구' 대상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유효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료의 활용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1. 조사개요³⁾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 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임
 -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의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 관람 및 교육활동 등 문화 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향상과 관련된 정책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파악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실시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2019년 기준 응답자는 약 10,000명임
 - 2005년 이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2005년 3,000명, 2008년 4,000명, 2010년 5,000명(제주도 포함), 2014년 10,000명(세종시 포함)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9)

으로 표본크기와 조사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됨

- 또한 2005년 이전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이후 2년 주기 조사로 개편되었으며, 2019년 조사부터 1년으로 최종 변경됨

2. 기초통계량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2012~2019년 가구원 수 분포는 다음 <표 3-4>와 같음⁴⁾
 -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각 2012년 215명, 2016년 418명, 2018년 993명, 2019년 966명임

<표 3-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별 응답자 수(단위: 명)

구분	2012	2016	2018	2019
전체	5,074	10,716	10,558	10,102
1인 가구	215 (4.2%)	418 (3.9%)	993 (9.4%)	966 (9.6%)
2인 가구	644 (12.7%)	1,909 (17.8%)	1,937 (18.3%)	2,462 (24.4%)
3인 이상 가구	4,216 (83.1%)	8,389 (78.3%)	7,629 (72.3%)	6,675 (66.1%)

참고: ()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2016~2019년 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다음 <표 3-5>와 같음
 - 성별 응답자 수는 2016년 기준 남성·1인 가구 152명, 여성·1인 가구 266명이며 2018~2019년은 남성·1인 가구 약 400명, 여성·1인 가구 약 500명으로 구성됨
- 2016~2019년 세대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 또한 다음 <표 3-5>에 제시됨
 - 세대별 응답자 수의 경우는, 2016년 기준 노년층·1인 가구를 제외하고

4) 2012년 이전 자료와 2014년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에 가구원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 2016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봄

- 100명 미만이며 특히 중년층·1인 가구의 경우 46명으로 작은 수준임
- 한편 2018~2019년은 최소 135명 ~ 최대 419명까지 분포되어 있어 2016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표 3-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418 (100.0%)	1,909 (100.0%)	8,389 (100.0%)	993 (100.0%)	1,937 (100.0%)	7,629 (100.0%)	966 (100.0%)	2,462 (100.0%)	6,675 (100.0%)	
성 별	남성	152 (36.3%)	959 (50.2%)	4,214 (50.2%)	444 (44.8%)	946 (48.9%)	3,880 (50.9%)	471 (48.8%)	1,255 (51.0%)	3,318 (49.7%)
	여성	266 (63.7%)	950 (49.8%)	4,175 (49.8%)	548 (55.2%)	990 (51.1%)	3,749 (49.1%)	494 (51.2%)	1,207 (49.0%)	3,357 (50.3%)
세 대 별	청년층	80 (19.3%)	180 (9.5%)	2,610 (32.9%)	275 (27.8%)	159 (8.3%)	2,286 (31.5%)	251 (26.2%)	306 (12.5%)	1,947 (31.0%)
	중년층	46 (11.1%)	122 (6.4%)	2,820 (35.6%)	135 (13.7%)	140 (7.3%)	2,668 (36.8%)	186 (19.4%)	327 (13.4%)	2,240 (35.7%)
	장년층	61 (14.6%)	664 (35.0%)	1,990 (25.1%)	158 (16.0%)	710 (36.9%)	1,903 (26.3%)	193 (20.1%)	852 (34.9%)	1,668 (26.6%)
	노년층	229 (54.9%)	930 (49.0%)	508 (6.4%)	419 (42.5%)	915 (47.6%)	390 (5.4%)	329 (34.3%)	955 (39.1%)	422 (6.7%)

참고: ()는 가구원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 2016~2019년 도시규모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다음 〈표 3-6〉과 같음
 -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응답자 수의 경우 2016년 약 100명 이상, 2018~2019년의 경우 약 200명 이상임
- 2016~2019년 월평균 가구소득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또한 다음 〈표 3-6〉에 제시함
 -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응답자 수는 2016년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100명 미만, 그 외 2018~2019는 모든 소득대에서 약 150명 이상임

〈표 3-6〉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418 (100.0%)	1,909 (100.0%)	8,389 (100.0%)	993 (100.0%)	1,937 (100.0%)	7,629 (100.0%)	966 (100.0%)	2,462 (100.0%)	6,675 (100.0%)	
도시 규모	대도시	138 (33.0%)	731 (38.3%)	3,873 (46.2%)	419 (42.2%)	762 (39.4%)	3,417 (44.8%)	357 (37.0%)	965 (39.2%)	3,003 (45.0%)
	중소도시	150 (35.8%)	639 (33.5%)	3,223 (38.4%)	354 (35.7%)	641 (33.1%)	3,004 (39.4%)	370 (38.4%)	843 (34.2%)	2,579 (38.6%)
	읍면	130 (31.2%)	539 (28.2%)	1,293 (15.4%)	220 (22.2%)	534 (27.6%)	1,208 (15.8%)	238 (24.6%)	655 (26.6%)	1,093 (16.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16 (51.6%)	258 (13.5%)	35 (0.4%)	305 (30.7%)	162 (8.4%)	39 (0.5%)	355 (36.8%)	316 (12.8%)	123 (1.8%)
	100만원대	90 (21.6%)	568 (29.7%)	158 (1.9%)	259 (26.1%)	480 (24.8%)	140 (1.8%)	212 (22.0%)	453 (18.4%)	132 (2.0%)
	200만원대	71 (16.9%)	482 (25.3%)	807 (9.6%)	259 (26.1%)	532 (27.5%)	630 (8.3%)	244 (25.3%)	559 (22.7%)	622 (9.3%)
	300만원 이상	42 (10.0%)	601 (31.5%)	7,389 (88.1%)	170 (17.1%)	762 (39.4%)	6,820 (89.4%)	154 (15.9%)	1,134 (46.1%)	5,798 (86.9%)

참고: ()는 가구원 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또한 분석 가능한 모든 차수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 기간을 세분화 하였음
- 첫째,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다인 가구와의 비교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 자료를 이용함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2012년 215명, 2016년 418명, 2018년 993명, 2019년 966명으로 추세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참고: 〈표 3-4〉)
- 둘째,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에서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6년~2019년 자료를 이용함

- 201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215명으로 이를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분리하는 경우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셋째, 성별·세대별과 같은 세부특성별 심층분석을 실시할 경우 유효표본이 매우 작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 약 1,000명 확보할 수 있는 2018~2019년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함
 - 단순히 하나의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기 때문에 2012년 1인 가구 215명과 2016년 1인 가구 418명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움
 - 가령 2016년 기준 중년·1인 가구의 경우 46명으로 이를 소득별로 다시 분석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표본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통계적 해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참고: <표 3-5>)

제3절 국민여행조사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행참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통계인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함
- 본 절에서는 앞선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동일하게 첫째,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 둘째, 기초통계량 제시한 후 셋째,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판단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국민여행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구 및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조사는 국민의 여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발표되는 주요 정책지표로는 ‘국내여행 경험율’, ‘총 여행 일수’가 있음
- 「국민여행조사」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기준 매월 4,00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연간 48,000명을 조사함
 - 본 조사는 2017년 까지 반기별 패널 조사로 진행하였으나 2018년 표본 설계를 변경하여 월별 조사로 변경, 이후 2019년 조사명을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국민여행조사」으로 변경하고 표본수를 확대함

2. 기초통계량

- 「국민여행조사」의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다음 <표 3-7>과 같음

<표 3-7> 국민여행조사 기초통계량 - 가구원수

구분	2018	2019
전체	24,154	48,269
1인 가구	3,318 (13.7%)	6,563 (13.6%)
2인 가구	5,900 (24.4%)	11,762 (24.4%)
3인 이상 가구	14,935 (61.8%)	29,944 (62.0%)

참고: ()는 전체 가구 대비 해당 가구 비율

- 2018~2019년 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다음 <표 3-8>과 같음
 - 1인 가구의 성별 응답자 수는 2018년 1,500명 이상 2019년 3,000명 이상
- 2018~2019년 세대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 또한 다음 <표 3-8>제시됨
 - 1인 가구의 세대별 응답자 수는 2018년 기준 최소 500명이며 2019년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3-8> 국민여행조사 - 개인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5,900 (100.0%)	14,935 (100.0%)	24,154 (100.0%)	11,762 (100.0%)	29,944 (100.0%)	48,269 (100.0%)	
성별	남성	1,565 (47.2%)	2,912 (49.4%)	7,429 (49.7%)	3,205 (48.8%)	6,025 (51.2%)	14,869 (49.7%)
	여성	1,754 (52.9%)	2,988 (50.6%)	7,506 (50.3%)	3,358 (51.2%)	5,736 (48.8%)	15,075 (50.3%)
세대별	청년층	987 (29.8%)	519 (8.8%)	4,776 (33.9%)	1,869 (28.5%)	1,288 (11.0%)	9,417 (33.0%)
	중년층	666 (20.1%)	580 (9.9%)	5,047 (35.8%)	1,459 (22.3%)	1,285 (11.0%)	10,321 (36.1%)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장년층	527 (15.9%)	2,228 (37.9%)	3,704 (26.3%)	1,126 (17.2%)	4,579 (39.1%)	7,671 (26.9%)
	노년층	1,133 (34.2%)	2,550 (43.4%)	580 (4.1%)	2,098 (32.0%)	4,565 (39.0%)	1,149 (4.0%)

참고: ()는 가구원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 2018~2019년 도시규모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표 3-9>와 같음
 - 1인 가구 2018년 기준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임
- 2018~2019년 월평균 가구소득별·가구원수별 응답자수는 또한 다음 <표 3-8>에 제시함
 - 1인 가구의 2018년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500명 이상

<표 3-9> 국민여행조사- 가구특성별·가구원수별 응답자 수(단위:명)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5,900 (100.0%)	14,935 (100.0%)	24,154 (100.0%)	11,762 (100.0%)	29,944 (100.0%)	48,269 (100.0%)
도 시 규 모	대도시	1,475 (44.5%)	2,372 (40.2%)	6,633 (44.4%)	2,938 (44.8%)	4,784 (40.7%)	12,936 (43.2%)
	중소도시	1,067 (32.2%)	1,988 (33.7%)	5,694 (38.1%)	2,309 (35.2%)	3,925 (33.4%)	12,049 (40.2%)
	읍면	776 (23.4%)	1,540 (26.1%)	2,609 (17.5%)	1,317 (20.1%)	3,053 (26.0%)	4,959 (16.6%)
월 평 균	100만원미만	558 (17.5%)	147 (2.5%)	16 (0.1%)	1,785 (27.2%)	819 (7.0%)	92 (0.3%)
	100만원대	745 (23.4%)	1,403 (23.9%)	84 (0.6%)	1,186 (18.1%)	2,476 (21.1%)	286 (1.0%)
가 구 소 득	200만원대	1,067 (33.5%)	1,625 (27.7%)	596 (4.0%)	2,059 (31.4%)	3,011 (25.6%)	1,727 (5.8%)
	300만원이상	812 (25.5%)	2,688 (45.9%)	14,196 (95.3%)	1,533 (23.4%)	5,455 (46.4%)	27,840 (93.0%)

참고: ()는 가구원수 대비 비율을 의미함

3. 데이터 분석 활용범위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여행참여 관련 심층 분석을 위하여 「국민여행조사」의 분석 가능한 2018~2019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함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다르게 표본수가 높기 때문에 모든 차수를 분석에 이용함
 - 단, 2018년 이후 조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전자료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제4절 문화·여가 및 여행 통계적 매칭자료

-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Methods)은 두 개의 독립적인 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각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여가 및 여행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소개한 분석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매칭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첫째,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연계
 - 둘째,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를 연계
 - 이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외, 주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과 문화관람 및 여행참여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 이에 본 절에서는 통계적 매칭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매칭한 통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통계적 매칭 활용 방법

- 데이터연계(data linkage)는 매칭은 서로 개별적으로 생산되어 별개의 파일(또는 데이터베이스(DB))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합 파일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2018, 박근화 외)
 - 데이터연계에는 크게 정확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매칭(statistical matching)으로 구분됨⁵⁾

5) 영국의 “National Statistics code of Practice on Data Matching(2003)”에서는 정확매칭, 판단매칭, 확률적 매칭, 통계적 매칭, 데이터 연결, 5가지로 구분하지만, 크게는 정확매칭과 통계적 매칭으로 활용됨

- 정확매칭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 변수가 공통으로 있을 때, 고유식별값이 같은 동일한 대상을 연계하는 방법
- 통계적 매칭은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각각의 데이터에 있는 공통변수에 고유식별이 가능한 변수가 없는 경우, 정확한 대상을 연계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성향을 가진 대상을 연계하는 방법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기준파일(수용자 파일, recipient file)이라 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연결하려는 대상을 연계파일(제공자 파일, donor file)이라 함
 - 기준파일과 연계파일의 각각에만 존재하는 변수를 고유변수(unique variable)라 하며, 두 데이터 양쪽 모두에 있는 변수를 공통변수(common variable)라 함
 - 공통변수의 성향이 같은 대상을 주로 데이터 연계에 활용하는데, 공통변수 중에서 데이터 연계를 위해 사용된 변수를 연계변수(matching variable)이라 함
 - 연계를 통해 연계된 하나의 파일을 통합파일(결합파일, matched file)이라고 함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데이터를 각각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함
 - 각각의 데이터에 고유식별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매칭은 활용할 수 없으며, 통계적 매칭을 이용하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매칭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변수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변량(covariate)⁶⁾으로 데이터셋을 생성
 - 데이터 매칭은 각각의 데이터셋을 모두 연계하는 방법과 필요한 변수만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음
 - 모든 변수를 연계하는 것은 동일한 대상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서 동일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
 - 관심변수만을 연계하는 것은 해당 변수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향을 나타내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효율을 보임

6) 공변량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통제하기 전에 결정된 값을 마하여, 대부분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활동조사」 데이터를 매칭하여, 서로 다르게 조사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같이 활용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하도록 함
 - 통계적 매칭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에 있는 관심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modelling)하여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음
 - 이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한 후, 각각의 데이터의 독립변수를 적용했을 때 예측값이 비슷한 대상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때 예측값 차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너무 다른 성향을 지닌 대상이 연결되지 않도록 함

2.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여행조사」 매칭

-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고, 「국민여행조사」를 연계파일로 하여 통합파일을 생성하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른 여행일수를 분석하고자 함
 - 따라서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⁷⁾과 「국민여행조사」의 ‘여행일수’, 임
 - 공통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가구원수, 혼인상태, 직업유무, 가구소득 변수를 활용함
- 선정된 고유변수와 공통변수를 가지고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유일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적합하여, 예측값을 이용하여 성향점수 생성
 - 여가활동 참여시간 평일(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여가활동 참여시간 휴일(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여가 월평균 지출액(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적합값을 계산하고, 「국민여행조

7) 여가활동 유형은,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분

사]에서 적합값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대상을 매칭

- 3개의 모델에 대한 예측값을 이용하여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값들이 가까운 대상을 연결함
- 기준파일은 하나씩 연결하지만, 연계파일의 데이터는 중복하여 연결하여, 성향이 비슷한 대상으로만 연결하도록 함
- 지역변수는 블로킹 변수로 활용하여, 같은 지역에서만 연결이 되도록 하여, 다른 지역의 대상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음

3.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국민문화활동조사」 매칭

- 「국민여가활동조사」를 기준파일로 하고, 「국민문화활동조사」를 연계파일로 하여 통합파일을 생성하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관람률을 분석하고자 함
 - 따라서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국민문화활동조사」의 '문화예술행사관람여부' 변수를 활용함
 - 공통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가구원수, 혼인상태,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동거자녀 미취학 아동수, 동거자녀 취학아동수, 문화예술행사 참여 관련 변수들을 활용함
- 선정된 고유변수와 공통변수를 가지고 「국민문화활동조사」의 유일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적합하여, 예측값을 이용하여 성향점수 생성
 - 여가활동 참여시간 평일(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여가활동 참여시간 휴일(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여가 월평균 지출액(예측변수), 공통변수(독립변수)
-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공통변수를 이용하여 적합값을 계산하고, 「국민문화활동조사」에서 적합 값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대상을 매칭
 - 3개의 모델을 가지고 예측 값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장 가

- 까운 대상이 해당 변수들에 있어 가장 유사한 대상으로 선정
- 기준파일은 하나씩 연결하지만, 연계파일의 데이터는 중복하여 연결하여, 성향이 비슷한 대상으로만 연결하도록 함
 - 지역변수는 블로킹 변수로 활용하여, 같은 지역에서만 연결이 되도록 하여, 다른 지역의 대상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음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4장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심층 분석

제1절 여가시간 현황분석

-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자 여가활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임⁸⁾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가시간’을 국민의 문화향유를 측정하는 정책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1인 가구의 여가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시간’의 변화와 추이를 파악하고,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주된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여기서 ‘여가시간’은 지난 3개월 간 본인이 향유한 여가활동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계산한 값임
 - 단,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과 휴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변화 추세

-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과 휴일 여가시간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표 4-1> 참고)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4.2시간으로 2012년 4.8시간 대비 약 13.1%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음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6.1시간으로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음

8) 참고: 국가지표체계(<http://index.go.kr>)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이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1〉 참고)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4.2시간)은 3인 이상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2시간) 보다 약 1.3배 더 길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1시간)은 3인 이상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5.3시간) 보다 약 1.2배 더 긴 것으로 파악됨
-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휴일 여가시간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다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표 3-1〉 참고)
 -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2019년 4.2시간으로 2012년(4.8 시간) 대비 약 13.1% 감소하였으며 휴일 여가시간은 2019년 6.1시간으로 2012년 (6.2) 대비 약 1.5%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음
 - 이는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이 9.5%, 휴일 여가시간이 7.2% 증가한 것과 상반됨

〈표 4-1〉 가구원수 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구분	평일				휴일			
	2012	2016	2018	2019	2012	2016	2018	2019
전체	3.2	3.1	3.3	3.5	5.1	5.0	5.3	5.4
1인 가구	4.8	4.4	3.8	4.2	6.2	5.9	5.7	6.1
2인 가구	4.4	3.8	3.9	3.9	5.6	5.3	5.7	5.5
3인 이상 가구	3.0	2.9	3.0	3.2	4.9	4.9	5.1	5.3

참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

3. 특성별 분석

가.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

- 1인 가구의 특성별 분석을 위하여 주요한 개인 및 가구특성인 ‘성별’, ‘세대별’, ‘도시 규모별’, ‘월평균 소득대별’로 비교·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1인 가구 특성 간 비교, 변화 추이 분석, 다인 가구와의 비교 순으로 분석함
- 단, 특성별 분석의 경우 충분한 유효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16~2019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1) 성별

- (1인 가구 성별 비교) 1인 가구의 성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여가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한 수준임(〈표 4-2〉참고)
 - 2019년 여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4.6시간으로 남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8시간) 보다 약 1.4배 더 높음
 - 또한 2019년 여성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 6.0시간으로 남성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2시간)과 큰 차이가 없음
- (변화 추이 분석) 2016~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성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큰 변화가 없음
 - 남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3.6시간에서 2019년 3.8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5.7시간에서 2019년 6.2시간으로 거의 비슷함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또한 평일 여가시간 2016년 4.8시간, 2019년 4.6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6.0시간, 2019년 6.0시간으로 거의 변화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여성 1인 가구는 여성 다인 가구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다소 높고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여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4.6시간)은 여성 다인 가구(3.3시간)보다 약 1.4배 높음
 - 반면 여성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0시간)은 여성 다인 가구(5.0시간) 보과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남성 1인 가구는 남성 다인 가구와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19년 남성 1인 가구 평일 여가시간(3.8시간)은 남성 다인 가구(3.1시간)

과 비슷함

- 2019년 남성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2시간) 또한 남성 다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5.5시간)과 크게 차이 없음

2) 세대별

- (1인 가구 세대별 비교) 1인 가구의 세대별 평일 여가시간은 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길고 청년층이 가장 짧은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표 4-2> 참고)
 - 2019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은 노년 1인 가구(5.4시간)에서 가장 길었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 (3.3시간)보다 약 1.6배 더 높은 수준임
 - 반면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는 휴일 여가시간은 6.5시간으로 청년 1인 가구(5.8시간)과 큰 차이가 없음
- (변화 추이 분석) 2016~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모든 세대에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임
 - 노년층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5.3시간에서 2019년 5.4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6.2시간에서 2019년 6.5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거의 비슷함
 - 청년층 1인 가구 또한 평일 여가시간 2016년 3.1시간, 2019년 3.3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5.6시간, 2019년 5.8시간으로 거의 변화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모든 세대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이 약간 더 길지만 큰 차이가 없음

<표 4-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평일 여가시간	4.4	3.8	2.9	3.8	3.9	3.0	4.2	3.9	3.2
남성	3.6	3.7	2.7	3.5	3.8	2.9	3.8	3.9	3.1
여성	4.8	3.9	3.0	4.1	4.0	3.1	4.6	4.0	3.3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층	3.1	2.9	2.8	3.1	3.0	3.1	3.3	3.2	3.2
중년층	3.2	2.7	2.8	2.9	3.1	2.8	3.4	3.2	3.0
장년층	3.5	3.3	2.9	3.3	3.6	3.0	3.9	3.5	3.2
노년층	5.3	4.5	4.1	4.8	4.4	4.0	5.4	4.8	5.2
휴일 여가시간	5.9	5.3	4.9	5.7	5.7	5.1	6.1	5.5	5.3
남성	5.7	5.4	5.0	5.7	5.7	5.2	6.2	5.8	5.5
여성	6.0	5.2	4.8	5.7	5.7	5.0	6.0	5.2	5.0
청년층	5.6	5.3	5.1	5.6	5.5	5.4	5.8	5.6	5.6
중년층	5.7	4.8	4.7	5.4	5.4	4.9	6.4	5.4	4.8
장년층	5.2	4.9	4.8	5.4	5.4	5.0	5.7	5.3	5.2
노년층	6.2	5.6	5.4	6.0	5.9	5.3	6.5	5.7	6.4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도시규모별

- (1인 가구 도시규모별 비교)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여가시간은 도시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 (<표 4-3>참고)
 - 2019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 대도시 1인 가구 4.4시간, 중소도시 4.0시간, 읍면지역 4.3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휴일 여가시간 또한 대도시 1인 가구 6.4시간, 중소도시 6.0시간, 읍면지역 5.9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임
- (변화 추이 분석) 2016~2019년 1인 가구의 도시 규모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큰 변화가 없음
 - 대도시 1인 가구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4.0시간, 2019년 4.4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5.7시간, 2019년 6.4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1인 가구 또한 대도시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와의 도시규모별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다인 가구는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대도시 1인 가구 여가시간은 대도시 다인 가구 보다 평일 약 1.2배, 휴일 1.1배로 약간 더 높으나 비슷한 수준임

- (다인 가구와 비교) 한편,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경우,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이 3인 이상 가구 보다 약간 더 길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1인 가구 여가시간은 중소도시 다인 가구 보다 평일 약 1.4배, 휴일 1.4배로 약간 더 높음

4) 월평균 가구소득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별 비교) 1인 가구의 가구소득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짧으며,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표 4-3〉 참고)

- 2019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은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5.6시간,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 3.2로 약 1.7배 차이남

- 한편 2019년 기준 휴일 여가시간은 소득 100만원 미만 6.7시간, 300만원 이상 5.8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음

- (변화 추이 분석) 2016~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가구 소득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음

-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2016년 5.5시간, 2019년 5.6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2016년 6.3시간, 2019년 6.7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임

- 300만원 이상의 1인 가구 또한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월평균 소득별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00만원 미만의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 보다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5.6시간, 6.7시간으로 다인 가구보다 (평일: 3.7시간, 휴일: 4.5시간)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300만원 이상의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와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2시간으로 3인 가구 3.2시간과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 또한 5.8시간으로 다인 가구 5.3시간과 큰 차이가 없음

〈표 4-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구분	2016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평일 여가시간	4.4	3.8	2.9	3.8	3.9	3.0	4.2	3.9	3.2
대도시	4.0	3.8	2.8	3.7	3.9	3.1	4.4	4.3	3.6
중소도시	4.1	3.5	2.9	3.6	3.5	2.9	4.0	3.6	2.9
읍면지역	5.1	4.1	3.1	4.6	4.3	3.2	4.3	3.8	3.1
100만원미만	5.5	4.7	4.6	5.4	5.3	4.7	5.6	5.6	3.7
100만원대	3.9	4.3	4.2	3.7	4.3	4.0	3.8	4.6	3.0
200만원	3.3	3.8	3.1	3.0	3.9	3.2	3.2	4.0	3.3
300만원 이상	2.6	3.0	2.8	2.9	3.3	3.0	3.2	3.3	3.2
휴일 여가시간	5.9	5.3	4.9	5.7	5.7	5.1	6.1	5.5	5.3
대도시	5.7	5.4	4.8	5.7	5.9	5.1	6.4	6.0	5.7
중소도시	5.9	5.0	4.9	5.5	5.5	5.0	6.0	5.3	5.0
읍면지역	6.1	5.4	5.1	6.0	5.7	5.3	5.9	5.0	4.9
100만원미만	6.3	5.6	6.0	6.6	6.2	5.6	6.7	6.2	4.5
100만원대	5.5	5.6	5.5	5.2	5.6	4.9	5.6	5.6	4.6
휴일 여가시간	5.9	5.3	4.9	5.7	5.7	5.1	6.1	5.5	5.3
200만원	5.8	5.2	4.7	5.3	5.6	5.0	5.9	5.7	5.0
300만원 이상	5.0	4.9	4.9	5.4	5.6	5.1	5.8	5.2	5.3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나.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⁹⁾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 유형별 평일 및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다른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여가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남(<표 4-4> 참고)
 - 2019년 기준 휴식활동이 주된 여가활동인 경우 4.5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약 1.4배 높 기량 높음
 - 한편,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의 경우도 평일여가시간이 4시간미만으로 1인 가구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2019년 기준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시간을 비교 해 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높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주 여가활동별로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격차가 가장 작은 가운데 휴식활동을 하는 경우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음
 - 주 여가활동이 휴식활동인 경우 1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여가시간이 1.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가구원수별·여가활동별 평균 여가시간(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평일여가시간	3.8	3.9	3.0	4.2	3.9	3.2
문화예술활동	3.3	3.9	2.5	3.7	3.7	2.7
스포츠활동	3.0	3.1	2.7	3.3	3.6	3.1
여행활동	1.9	2.6	2.4	2.7	3.6	3.0
취미오락활동	3.3	3.5	2.9	3.7	3.5	3.2
휴식활동	4.2	4.0	3.2	4.5	4.1	3.4
사회활동	3.8	4.1	3.0	3.4	3.4	3.0
휴일여가시간	5.7	5.7	5.1	6.1	5.5	5.3
문화예술활동	4.9	5.6	4.4	4.6	5.3	5.2
스포츠활동	5.1	5.6	4.9	5.8	5.3	5.5
여행활동	3.4	3.4	5.0	4.1	4.9	4.6
취미오락활동	5.7	5.6	5.3	6.3	5.5	5.4

9)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 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휴식활동	5.7	5.7	5.1	6.2	5.6	5.2
사회활동	6.3	6.3	5.3	4.9	4.6	5.0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다. 세부 특성별 분석¹⁰⁾

- 1인 가구의 세부특성별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특성을 교차하여 총 6개로 대세분화함
 - 해당 분석 또한 1인 가구의 특성별 특징,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다인 가구와 비교 순으로 살펴보고자 함
- 단, 세부특성별 분석은 앞선 제 3장 분석자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유효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18~2019년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음

1) 성별·세대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세대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모두 노년층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노년층의 경우 가장 높음 (<표 4-5> 참고)
 - 2019년 기준 여성·노년층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5.5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남성·노년층 1인 가구 5.0시간 순이었음
 - 그 외, 여성 노년층 1인가구와 과 남성 노년층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3시간 후반대로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경향은 휴일 여가시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성별 1인 가구의 청년층, 노년층의 평일 여가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 보다 더 크게 차이

10) 세부 특성별 분석의 경우, 유효표본이 작아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현황분석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하기를 권장함

나는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청년층과 노년층의 평일 여가시간 격차는 남성 1인 가구 1.5배, 여성 1인 가구는 1.7배로 여성 가구에서 크게 나타남
- 반면 2019년 기준 청년층과 노년층의 휴일 여가시간 격차는 남성 1인 가구 1.1배, 여성 1인 가구는 1.2배로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보임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성별·세대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 큰 차이 없음
 - 2019년 여성·노년층의 1인 가구와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1인 가구 5.5시간, 3인 이상 가구 5.4시간)과 휴일 여가시간(1인 가구: 6.4시간, 3인 이상 가구: 6.5시간)과 거의 비슷함
 - 2019년 남성·노년층 또한 1인 가구와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1인 가구 5.0시간, 3인 이상 가구 5.0시간)과 휴일 여가시간(1인 가구: 6.8시간, 3인 이상 가구: 6.4시간)동일한 수준임
 - 2019년 여성·청년층의 경우에도 1인 가구와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1인 가구 3.2시간, 3인 이상 가구 3.2시간)과 휴일 여가시간(1인 가구: 5.5시간, 3인 이상 가구: 5.5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 4-5〉 성별·세대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평일여가시간	3.5	3.8	2.9	3.8	3.9	3.1
청년층	3.1	2.9	3.1	3.4	3.1	3.2
중년층	2.9	3.1	2.7	3.4	3.1	2.8
장년층	3.2	3.3	2.9	4.0	3.6	3.1
노년층	4.5	4.4	4.1	5.0	4.8	5.0
여성 평일여가시간	4.1	4.0	3.1	4.6	4.0	3.3
청년층	2.9	3.1	3.1	3.2	3.2	3.2
중년층	2.7	3.1	2.9	3.2	3.5	3.1
장년층	3.4	3.8	3.2	3.7	3.5	3.3
노년층	4.9	4.4	4.0	5.5	4.7	5.4
남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2	6.2	5.8	5.5
청년층	5.7	5.6	5.5	5.9	5.9	5.8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중년층	5.5	5.7	4.9	6.6	5.6	5.1
장년층	5.2	5.5	5.2	6.0	5.7	5.6
노년층	5.9	5.9	5.6	6.8	5.9	6.4
여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0	6.0	5.2	5.0
청년층	5.4	5.5	5.4	5.5	5.4	5.5
중년층	5.2	4.9	4.8	5.7	5.2	4.5
장년층	5.5	5.4	4.8	5.3	4.9	4.8
노년층	6.0	6.0	5.0	6.4	5.5	6.5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2) 성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도시규모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표 4-6〉 참고)
 - 2019년 기준 남성·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9시간으로 읍면 지역(3.6시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2019년 여성·대도시 1인 가구 또한 평일 여가시간은 4.8시간으로 읍면 지역(4.7시간)과 거의 비슷함
 - 휴일 여가시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남성·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여성·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 보다 짧은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오히려 길게 나타난 것이 특징임
 - 2019년 기준 남성·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9시간으로 여성 대도시 1인 가구(4.8시간) 보다 비교적 짧은 수준임
 - 반면 2019년 남성·대도시 1인 가구 또한 휴일 여가시간은 6.6시간으로 여성 대도시 1인 가구(6.2시간) 보다 오히려 긴 것으로 나타남
 - 즉, 남성 대도시 거주 1인 가구는 평일 여가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휴일 여가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높은 가운데 여성·읍면 지역 1인 가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2019년 기준, 여성·읍면 지역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4.7시간)은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1시간)보다 약 1.5배 더 높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성별·도시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여성·읍면 지역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0시간)은 다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4.6시간)보다 약 1.3배 더 높아, 평일 여가시간의 격차보다는 비교적 작은 수준임

〈표 4-6〉 성별·도시규모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평일여가시간	3.5	3.8	2.9	3.8	3.9	3.1
대도시	3.6	3.8	3.0	3.9	4.3	3.4
중소도시	3.3	3.4	2.7	3.7	3.5	2.9
읍면	3.9	4.2	3.2	3.6	3.8	3.0
여성 평일여가시간	4.1	4.0	3.1	4.6	4.0	3.3
대도시	3.8	4.1	3.1	4.8	4.3	3.7
중소도시	4.0	3.6	3.0	4.3	3.6	3.0
읍면	5.1	4.3	3.3	4.7	3.9	3.1
남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2	6.2	5.8	5.5
대도시	5.8	5.8	5.3	6.6	6.3	6.0
중소도시	5.4	5.5	5.0	6.1	5.6	5.2
읍면	5.8	5.9	5.4	5.9	5.2	5.2
여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0	6.0	5.2	5.0
대도시	5.6	6.0	5.0	6.2	5.7	5.4
중소도시	5.6	5.5	5.0	5.9	4.9	4.8
읍면	6.2	5.5	5.2	6.0	4.9	4.6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가구소득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표 4-7〉참고)

- 2019년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5.8시간으로 300

만원 이상(3.2시간)보다 1.8배 길게 나타남

- 2019년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 또한 평일 여가시간은 5.5시간으로 300만원 이상(3.4시간) 보다 1.6배 긴 것으로 파악됨
- 단, 2019년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 휴일 여가시간은 6.6시간으로 300만원 이상(5.0시간) 보다 1.3배 길게 나타났으나 평일 여가시간 보다는 그 격차가 낮은 수준임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여성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8시간)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5.5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7.1시간)과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6.6시간)또한 비슷함
- (다인 가구와 비교) 비교적 소득이 낮은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8시간)은 다인 가구(3.6시간)보다 약 1.6배 더 높은 수준임
 - 2019년 기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5시간)은 다인 가구(3.7시간)보다 약 1.5배 더 높게 나타남
 - 단,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성별·월평균 소득별로 평일 여가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을 또한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서 차이가 나타남
 - 2019년 기준,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7.1시간)은 다인 가구(4.4시간)보다 약 1.6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6시간)은 다인 가구(4.5시간)보다 약 1.5배 더 높음
 - 그 외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성별·월평균 소득별로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한 경향을 보임

〈표 4-7〉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평일여가시간	3.5	3.8	2.9	3.8	3.9	3.1
100만원미만	5.1	5.5	5.1	5.8	5.9	3.6
100만원대	3.8	4.2	4.1	3.6	4.7	2.6
200만원대	2.9	3.7	3.0	3.2	3.9	3.2
300만원이상	2.9	3.1	2.9	3.2	3.2	3.1
여성 평일여가시간	4.1	4.0	3.1	4.6	4.0	3.3
100만원미만	5.5	5.1	4.2	5.5	5.3	3.7
100만원대	3.7	4.3	3.8	3.9	4.5	3.2
200만원대	3.0	4.0	3.4	3.3	4.1	3.4
300만원이상	2.8	3.6	3.1	3.4	3.4	3.3
남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2	6.2	5.8	5.5
100만원미만	6.6	6.4	5.7	7.1	6.5	4.4
100만원대	5.3	5.5	5.6	6.0	5.9	4.1
200만원대	5.5	5.7	5.1	6.1	5.7	5.2
300만원이상	5.4	5.6	5.2	6.0	5.6	5.6
여성 휴일여가시간	5.7	5.7	5.0	6.0	5.2	5.0
100만원미만	6.7	6.0	5.6	6.6	6.0	4.5
100만원대	5.2	5.7	4.3	5.4	5.2	4.9
200만원대	5.1	5.6	4.9	5.6	5.5	4.8
300만원이상	5.2	5.6	5.0	5.0	4.8	5.1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4) 세대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세대별·도시규모별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모든 세대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표 4-8〉 참고)
 - 2019년 청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2시간으로 읍면지역(3.4시간)과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노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5.5시간으로 읍면지역(5.4시간)과 거의 동일함 수준임
 - 휴일 여가시간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노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과 청년 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기준 평일 노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5시간)은 청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2시간)보다 약 1.7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일 여가시간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평일 및 여가시간은 세대별·도시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청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2시간)은 3인 이상 가구(3.4시간)과 동일한 수준임
 - 이는 청년·읍면 지역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2019년 노년·대도시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5시간)은 3인 이상 가구(5.7시간)과 비슷한 수준임
 - 이 또한 노년·읍면 지역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도 유사함

〈표 4-8〉 세대별·도시규모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시 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 평일여가시간	3.1	3.0	3.1	3.3	3.2	3.2
대도시	3.0	3.0	3.1	3.2	3.5	3.4
중소도시	3.2	3.0	3.0	3.4	2.9	3.1
읍면	3.1	2.9	3.2	3.4	3.3	3.1
중년 평일여가시간	2.9	3.1	2.8	3.4	3.2	3.0
대도시	3.1	3.4	2.9	3.7	3.1	3.3
중소도시	2.6	2.8	2.7	3.3	3.1	2.7
읍면	3.2	3.6	3.1	3.1	3.6	2.7
장년 평일여가시간	3.3	3.6	3.0	3.9	3.5	3.2
대도시	3.4	3.6	3.1	4.6	3.9	3.5
중소도시	3.0	3.4	2.8	3.7	3.1	2.9
읍면	3.8	3.7	3.2	3.2	3.5	2.9
노년 평일여가시간	4.8	4.4	4.0	5.4	4.8	5.2
대도시	4.5	4.4	4.2	5.5	5.4	5.7
중소도시	4.7	4.0	3.7	5.3	4.6	4.9
읍면	5.3	4.9	4.2	5.4	4.3	4.5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 휴일여가시간	5.6	5.5	5.4	5.8	5.6	5.6	
	대도시	5.5	5.0	5.4	6.0	5.9	6.0
	중소도시	5.8	6.0	5.4	5.6	5.4	5.3
	읍면	5.7	5.6	5.6	5.8	5.6	5.3
중년 휴일여가시간	5.4	5.4	4.9	6.4	5.4	4.8	
	대도시	6.0	5.9	4.9	6.5	5.5	5.2
	중소도시	5.0	5.0	4.8	6.1	5.4	4.5
	읍면	5.2	5.7	5.1	6.6	5.4	4.4
장년 휴일여가시간	5.4	5.4	5.0	5.7	5.3	5.2	
	대도시	5.7	5.9	5.0	6.5	5.8	5.4
	중소도시	4.8	5.2	4.9	5.5	5.0	5.0
	읍면	5.6	5.3	5.4	4.9	5.0	5.0
노년 휴일여가시간	6.0	5.9	5.3	6.5	5.7	6.4	
	대도시	5.8	6.1	5.7	6.5	6.5	7.0
	중소도시	5.9	5.7	4.9	6.7	5.6	6.5
	읍면	6.3	5.9	5.3	6.3	5.0	5.2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5) 세대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세대별·가구소득별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가구소득이 작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비교적 더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소득별 평일 여가시간의 차이가 두드러짐 (<표 4-9>참고)
 - 2019년 중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6.0시간으로 300만원 이상(3.4시간)보다 약 1.8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9년 기준 장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5.8시간으로 300만원 미만(2.9시간)보다 2배 가량 더 긴 것이 특징임
 - 단, 휴일 여가시간의 경우는 모든 세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임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1인 가구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이 청년층 보다 비교적 평일 여가시간이 길게 나

타나는 반면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청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4.0시간으로 중년(6.0시간), 장년(5.8시간), 노년(5.8시간)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임
- 한편 2019년 청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6.1시간으로 중년(6.6시간), 장년(6.9시간), 노년(6.8시간)과 비슷한 수준임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반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세대가 비교적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청년·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1시간으로 중년(3.4시간), 장년(2.9시간), 노년(4.2시간)와 큰 차이가 없음
 - 마찬가지로 2019년 청년·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5.7시간)또한 중년(6.2시간), 장년(5.2시간), 노년(5.6시간)과 비슷한 수준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중년·100만원 미만 인 경우 비교적 크게 차이 남
 - 2019년 기준, 중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6.0시간으로 다인 가구 3.7시간 보다 약 1.6배 더 높음
 -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 중년·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6.6시간)으로 다인 가구 4.6시간 보다 약 1.4배 더 높음

〈표 4-9〉 세대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 평일여가시간	3.1	3.0	3.1	3.3	3.2	3.2
100만원미만	4.0	3.7	4.4	4.0	3.9	3.9
100만원대	3.0	3.6	5.0	3.5	4.9	2.7
200만원대	2.9	3.5	3.2	3.1	3.2	3.2
300만원이상	2.9	2.8	3.1	3.1	3.1	3.2
중년 평일여가시간	2.9	3.1	2.8	3.4	3.2	3.0
100만원미만	5.6	4.8	3.4	6.0	7.0	3.7
100만원대	2.7	3.7	3.1	2.9	4.0	2.8
200만원대	3.0	3.3	2.9	3.0	3.4	2.8
300만원이상	2.7	2.9	2.8	3.4	3.0	3.0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장년 평일여가시간	3.3	3.6	3.0	3.9	3.5	3.2
100만원미만	5.0	6.0	4.7	5.8	6.0	3.3
100만원대	3.5	3.8	3.3	3.5	3.9	2.8
200만원대	3.0	3.7	3.5	3.3	3.7	3.0
300만원이상	2.8	3.4	3.0	2.9	3.2	3.2
노년 평일여가시간	4.8	4.4	4.0	5.4	4.8	5.2
100만원미만	5.6	5.3	5.0	5.8	5.6	4.5
100만원대	4.0	4.4	4.3	4.4	4.9	3.7
200만원대	3.1	4.2	4.1	4.3	4.5	5.4
300만원이상	3.7	3.8	3.9	4.2	3.9	5.3
청년 휴일여가시간	5.6	5.5	5.4	5.8	5.6	5.6
100만원미만	6.2	5.7	5.3	6.1	5.3	5.3
100만원대	5.6	6.0	4.8	6.0	7.4	3.4
200만원대	5.5	6.0	5.3	5.6	5.3	4.7
300만원이상	5.4	5.4	5.5	5.7	5.7	5.7
중년 휴일여가시간	5.4	5.4	4.9	6.4	5.4	4.8
100만원미만	6.8	6.4	4.1	6.6	7.2	4.6
100만원대	4.6	5.1	4.6	6.3	6.3	4.6
200만원대	5.7	5.6	4.6	6.6	5.6	4.6
300만원이상	5.3	5.4	4.9	6.2	5.3	4.8
장년 휴일여가시간	5.4	5.4	5.0	5.7	5.3	5.2
100만원미만	6.7	6.4	5.3	6.9	7.0	4.2
100만원대	5.4	5.2	4.1	5.3	5.0	4.4
200만원대	5.0	5.4	5.2	5.4	5.6	4.8
300만원이상	5.2	5.5	5.0	5.2	5.1	5.2
노년 휴일여가시간	6.0	5.9	5.3	6.5	5.7	6.4
100만원미만	6.7	6.2	5.8	6.8	6.2	4.5
100만원대	5.1	5.7	5.4	5.6	5.7	5.2
200만원대	4.6	5.9	5.1	6.5	5.8	6.6
300만원이상	6.2	6.1	5.3	5.6	4.9	6.6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6)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도시규모·가구소득별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 모두 가구소득이 작을수록 평일 여가시

간이 더 길게 나타남(〈표 4-10〉참고)

- 2019년 대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6.0시간으로 300만원 이상(3.3시간)보다 약 1.8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9년 기준 중소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5시간)은 300만원 미만(3.0시간)보다 1.7배
 - 읍면 지역·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4시간)은 300만원 미만(3.0시간) 보다 1.8배 더 긴 것이 특징임
 - 그 외, 휴일 여가시간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모두 소득에 관계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1인 가구를 도시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대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6.0시간으로 중소도시(5.5시간)와 읍면지역(5.4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휴일 여가시간 또한 대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7.1시간으로, 중소도시(6.8시간)와 읍면지역(6.4시간)보다 약간 더 높으나 거의 차이가 없음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1인 가구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규모별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대도시·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3.3시간으로 중소도시(3.2시간)와 읍면지역(3.0시간)과 거의 동일함
 - 마찬가지로 2019년 대도시·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5.9시간으로, 중소도시(5.7시간)와 읍면지역(5.5시간)과 비슷함
- (다인 가구와 비교) 중소도시·100만원 미만과 읍면지역·1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이 다인 가구보다 비교적 더 길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중소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5시간)은 3인 이상 가구(3.0시간) 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임
 - 마찬가지로 2019년 읍면지역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5.4시간)은 3인 이상 가구(3.0시간) 보다 약 1.8배 높음

- 한편 2019년 대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6.0시간)은 3인 이상 가구(4.3시간) 보다 약 1.4배 높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보다는 비교적 격차가 작은 것이 특징임

〈표 4-10〉 도시규모별·월평균가구소득별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대도시 평일여가시간	3.7	3.9	3.1	4.4	4.3	3.6
100만원미만	5.0	5.0	5.0	6.0	6.9	4.3
100만원대	3.7	4.3	4.0	4.0	5.5	3.5
200만원대	3.0	3.9	3.3	3.6	4.3	3.7
300만원이상	2.9	3.5	3.1	3.3	3.5	3.6
중소도시 평일여가시간	3.6	3.5	2.9	4.0	3.6	2.9
100만원미만	5.5	5.1	4.0	5.5	4.8	3.0
100만원대	3.5	3.8	3.5	3.9	4.2	2.7
200만원대	2.7	3.8	3.1	3.0	3.9	2.9
300만원이상	2.7	3.0	2.8	3.2	3.0	3.0
읍면 평일여가시간	4.6	4.3	3.2	4.3	3.8	3.1
100만원미만	5.8	5.7	5.0	5.4	5.2	3.0
100만원대	4.0	4.6	4.2	3.2	4.0	3.0
200만원대	3.2	3.9	3.4	2.9	3.7	3.3
300만원이상	3.5	3.6	3.2	3.0	3.3	3.0
대도시 휴일여가시간	5.7	5.9	5.1	6.4	6.0	5.7
100만원미만	6.6	6.1	5.4	7.1	7.6	5.1
100만원대	5.3	5.9	5.1	5.9	6.6	4.7
200만원대	5.3	6.0	5.0	6.4	6.1	5.6
300만원이상	5.7	5.8	5.1	5.9	5.5	5.7
중소도시 휴일여가시간	5.5	5.5	5.0	6.0	5.3	5.0
100만원미만	6.7	6.3	5.5	6.8	5.5	4.5
100만원대	5.0	5.2	4.9	5.7	5.4	4.4
200만원대	5.2	5.5	4.9	5.5	5.7	4.5
300만원이상	4.9	5.4	5.0	5.7	5.1	5.0
읍면 휴일여가시간	6.0	5.7	5.3	5.9	5.0	4.9
100만원미만	6.7	6.2	5.9	6.4	5.8	3.2
100만원대	5.4	5.6	4.8	5.2	4.7	4.8
200만원대	5.3	5.4	5.1	5.8	5.0	4.6
300만원이상	5.7	5.7	5.4	5.5	5.0	5.0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제2절 여가시간 영향분석

- 제 1절에서는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의 변화와,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을 실시함
- 이러한 분석방법은 변화의 추이나 각 특성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앞선 <표 4-1>의 분석 결과를, 동일한 시간 내 동일한 조건(성별, 소득, 도시규모 등)일 때, 1인 가구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 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더 길어진다고 해석할 수 없음
- 하지만 계량모형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함
 - 계량모형을 사용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하나의 변인만 변화할 경우 여가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¹¹⁾
- 이에 본 절에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여가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¹²⁾
 - 분석을 위해 2018~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¹³⁾를 이용하였으며, 적합한 계량 분석 모형을 소개한 후, 최종적으로 1인 가구의 특성별 영향,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 단, 분석방법의 경우, 사용하는 계량 모형의 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보다는 추정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자 함¹⁴⁾

11) 계량모형은 분석을 위한 가정이나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변수의 누락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초 통계량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1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영향분석”으로 정의함

13) 향후 분석 시, 매칭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18~2019년 자료만 분석에 포함함

1. 분석방법¹⁵⁾

- 일반적으로 종속변수¹⁶⁾가 “시간”이나 “지출액”과 연속변수인 경우, 선형모형에서 독립변수¹⁷⁾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OLS로 분석하는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OLS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y_i = x_i' \beta + u_i \quad x_i = (1, x_{i2}, \dots, x_{ik})', \beta = (\beta_1, \dots, \beta_k)$$

$$x_i \perp u_i, u_i \sim N(0, \sigma) \quad i = 1, 2, \dots, n \quad , 18)$$

- y_i 는 여가활동 시간으로 종속변수, x_i 는 총 k개의 개인특성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 가구원수 등의 독립변수, u_i 는 오차항, β 는 추정해야 할 모수 벡터임
- OLS는 예측오차(prediction error)¹⁹⁾를 최소화 하는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임. 즉, 다음 식을 최소화하는 계수 β 추정함

$$\frac{1}{N} \sum_i (y_i - x_i' \hat{\beta})^2$$

- 여기서 $\hat{u}_i = y_i - x_i' \hat{\beta}$ 는 예측오차, $\hat{\beta}$ 는 모수 β 의 추정치
- 따라서 최소화 해를 구하기 위한 위 식의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 F.O.C)²⁰⁾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14) 계량분석의 경우는 수학이나 통계적 설명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되, 향후 추정된 값을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기를 권장함

15) 계량모형의 방법론은 Lee(2008)을 참고하여 서술함

16) 종속변수란, 독립변수에 의해 항상 영향을 받는 변수로 여기서는 “여가시간”을 의미

17) 독립변수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가구원수 외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를 의미하게 됨

18) 본 분석을 위해서는 오차항과 독립변수와의 관계, 오차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불가피함

19) 예측오차란, 실제 값과 추정된 값과의 차이를 의미함

20) 예측오차를 목적함수라고하면 이를 최소화하는 조건은 1계 조건을 통해 산출할 수 있음

$$\frac{1}{N} \sum_i x_i (y_i - x_i' \hat{\beta}) = 0 \Leftrightarrow \frac{1}{N} \sum_i x_i y_i = \frac{1}{N} \sum_i x_i x_i' \hat{\beta}$$

- 위 식을 $\hat{\beta}$ 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됨

$$\hat{\beta} = \left(\sum_i x_i x_i' \right)^{-1} \sum_i x_i y_i'$$

- 이때, 추정된 계수($\hat{\beta}$)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냄
 - 추정된 계수 $\hat{\beta}$ 가 양(+)이면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인 경우 여가활동시간이 감소함을 의미함
- 이때, 변화에 대한 해석은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인지 또는 항목변수, 이진변수인지에 따라 달라짐
 - 첫째,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라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예.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여가시간의 변화로 해석
 - 둘째, 독립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이라면 (예. 기혼) 0에서 1로 변화 할 때, 여가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함
 - 셋째, 독립변수가 몇 가지 범주(category)로 이루어진 경우(예. 도시규모)는 한 가지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바뀌었을 때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하게 됨²¹⁾
-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였음²²⁾

2. 분석결과

- 제2절 영향분석 또한 앞선 제 1절 현황분석과 마찬가지로 “평일여가시간”과

21) 예를 들어, 도시규모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여가시간의 증가 혹은 감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22) 계수추정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구한 후 이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 판단이 필요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음

“휴일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1인 가구의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을 위하여 계량 모형을 전체가구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다인 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추정함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함
 - 특성별 분석을 위해서 앞서 사용한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월평균 가구소득 외, 여가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과 시간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함²³⁾
 - 단, 앞선 현황분석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구원수 및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소득대별 위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주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음
 -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활동과 여행활동에 대응하는 모수의 추정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외삽(extrapolation)에 의존한 추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가. 다인 가구와 비교

-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의 여가시간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여가시간이 약간 짧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참고: 표 4-11>
 - 평일 여가시간은 1인 가구가 3인 가구에 비하여 0.4시간 짧아 차이가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3) 가구원 수는 3인 가구, 성별은 여성, 세대는 노년층, 학력은 중졸이하, 혼인상태는 미혼, 직업유무는 직업 있음, 도시규모는 읍면지역,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주 여가활동은 휴식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로 해석됨

- 휴일 여가시간은 1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약 0.0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 영향이 거의 없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나. 특성별 분석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노년층이 청년, 중·장년층 보다 여가시간이 약간 더 길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큰 차이는 없음
 - 남성 1인 가구 여가시간은 여성 1인 가구 보다 평일 0.2시간, 휴일 0.4시간 길게 나타나 차이가 크지 않음
 - 세대별 분석 또한, 청년층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노년층 1인 가구 보다 평일 0.5시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 여가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반면, 도시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한편 1인 가구는 소득이 작을수록 여가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특성들(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임
 -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작은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 비하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일 여가시간 1.2시간, 휴일 여가시간 1.1시간 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특성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여가시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소득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임
 - 1인 가구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비하여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여가시간이 약 1시간 이상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100만원 미만 가구 보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일 여가시간 0.2시간, 휴일 여가시간 0.5시간 짧아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또한 1인 가구는 세대별로 여가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인 이상 가구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짐

- 1인 가구는 비교적 노년층이 다른 가구에 비하여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큰 차이가 없었음
- 하지만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일 경우 다인 가구 보다 평일 여가시간은 1.6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1.2시간 더 짧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다.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²⁴⁾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다른 여가 활동보다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며 그 정도는 활동별로 차이를 보임
- (1인 가구 특성분석) 특히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 보다 “문화예술활동”이나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더 짧아 그 차이가 두드러짐
 -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약 0.9시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에 비하여 휴일 여가시간이 1.6시간 짧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다른 활동에 비하여 비교적 큼
- (다인 가구와 비교) 3인 이상의 다인 가구 또한 “문화예술활동”이나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1인 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음
 -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하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약 0.6시간 짧아, 1인 가구의 추정결과(-0.9시간) 보다는 비교적 낮음
 - 또한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0.3시간 짧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이는 여행활동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1인 가구의 추정결과와는 비교적 다른 특징을 보임

24)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

〈표 4-11〉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 - OLS 분석 결과

구분	평일 여가시간				휴일 여가시간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전체	1인	2인	3인이상
1인 가구	-0.038 (0.068)	-	-	-	0.005 (0.095)	-	-	-
2인 가구	0.169*** (0.044)	-	-	-	0.306*** (0.063)	-	-	-
남성	0.129*** (0.032)	0.172** (0.082)	0.315*** (0.069)	0.049 (0.039)	0.418*** (0.048)	0.392*** (0.109)	0.559*** (0.092)	0.347*** (0.062)
청년층	-1.081*** (0.103)	-0.487*** (0.150)	-0.599*** (0.133)	-1.574*** (0.195)	-0.663*** (0.121)	0.0806 (0.206)	0.0270 (0.201)	-1.148*** (0.215)
중년층	-0.921*** (0.088)	-0.304** (0.150)	-0.470*** (0.125)	-1.416*** (0.173)	-0.743*** (0.107)	0.495** (0.218)	-0.113 (0.181)	-1.126*** (0.194)
장년층	-0.678*** (0.079)	-0.273** (0.132)	-0.243*** (0.090)	-1.197*** (0.169)	-0.485*** (0.094)	-0.0650 (0.169)	-0.167 (0.117)	-0.811*** (0.189)
고졸	-0.025 (0.067)	-0.645*** (0.145)	-0.144 (0.096)	0.220** (0.110)	0.236*** (0.080)	-0.413** (0.170)	0.276** (0.117)	0.359*** (0.129)
대졸이상	0.064 (0.075)	-0.454*** (0.168)	0.084 (0.128)	0.237** (0.116)	0.341*** (0.092)	-0.283 (0.217)	0.354** (0.168)	0.447*** (0.138)
기혼	-0.295*** (0.057)	-0.113 (0.174)	-0.115 (0.092)	-0.363*** (0.079)	-0.687*** (0.080)	0.199 (0.261)	-0.104 (0.129)	-0.933*** (0.113)
직업있음	-0.979*** (0.041)	-0.947*** (0.139)	-1.525*** (0.082)	-0.792*** (0.051)	-0.278*** (0.056)	-0.188 (0.166)	-0.885*** (0.106)	-0.0680 (0.0710)
대도시	0.110*** (0.039)	0.0975 (0.103)	0.152* (0.082)	0.114** (0.049)	0.324*** (0.060)	0.325** (0.129)	0.574*** (0.105)	0.228*** (0.082)
중소도시	-0.226*** (0.040)	-0.0785 (0.108)	-0.299*** (0.083)	-0.220*** (0.050)	-0.059 (0.061)	-0.0239 (0.135)	0.0438 (0.108)	-0.135 (0.083)
100만원대	-0.852*** (0.100)	-0.999*** (0.155)	-0.664*** (0.159)	-0.463 (0.314)	-0.807*** (0.109)	-1.090*** (0.175)	-0.523*** (0.163)	-0.309 (0.363)
200만원대	-0.925*** (0.103)	-1.130*** (0.181)	-0.830*** (0.162)	-0.160 (0.267)	-0.599*** (0.113)	-1.017*** (0.208)	-0.360** (0.175)	0.359 (0.293)
300만원 이상	-0.957*** (0.106)	-1.125*** (0.186)	-1.002*** (0.165)	-0.170 (0.260)	-0.525*** (0.118)	-1.112*** (0.226)	-0.524*** (0.186)	0.508* (0.284)
문화예술 활동	-0.568*** (0.116)	-0.396 (0.283)	-0.102 (0.276)	-0.748*** (0.138)	-0.445** (0.187)	-0.890*** (0.332)	-0.00948 (0.363)	-0.549** (0.239)
스포츠 활동	-0.305*** (0.054)	-0.300** (0.137)	-0.359*** (0.118)	-0.299*** (0.063)	-0.145 (0.095)	-0.249 (0.227)	-0.238 (0.186)	-0.114 (0.115)

구분	평일 여가시간				휴일 여가시간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여행활동	-0.521*** (0.173)	-0.722** (0.356)	-0.546 (0.617)	-0.489*** (0.168)	-0.604* (0.315)	-1.560*** (0.424)	-1.442* (0.861)	-0.298 (0.342)
취미오락 활동	-0.156*** (0.036)	-0.0819 (0.095)	-0.069 (0.084)	-0.178*** (0.043)	0.0262 (0.057)	0.202 (0.137)	-0.026 (0.126)	0.015 (0.0694)
사회활동 및 기타	-0.273*** (0.058)	-0.218 (0.153)	-0.202* (0.114)	-0.275*** (0.073)	-0.167* (0.091)	-0.082 (0.227)	-0.368* (0.190)	-0.087 (0.112)
2019년	0.201*** (0.030)	0.346*** (0.080)	0.215*** (0.064)	0.182*** (0.037)	0.087* (0.045)	0.349*** (0.103)	-0.139 (0.0856)	0.123** (0.058)
상수항	5.766*** (0.105)	5.707*** (0.119)	5.733*** (0.166)	5.245*** (0.293)	6.374*** (0.125)	6.381*** (0.130)	6.103*** (0.188)	5.747*** (0.322)
사례수	19,755	3,948	4,919	10,888	19,755	3,948	4,919	10,888

참고 1.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제3절 소결

- 본 절에서는 앞선 “제1절 특성분석”과 “제2절 영향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1인 가구의 변화,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5)

1. 결과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2년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약 4시간, 6시간으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이는 다인 가구와의 여가시간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약 3시간, 휴일 약 5시간으로 1시간 가량 차이남
 - 하지만 가구원수가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따라서, 1인 가구가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비교적 여가 시간은 길게 나타나 나 이것이 가구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고 휴일 여가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4.6시간으로 남성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3.8시간) 보다 약 1.4배 길게 나타남

25)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세부적인 요인에 대하여 분석 하기 보다는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결과 위주로 작성함

- 한편, 모든 요인이 동일한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일 때 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0.1, 휴일 여가시간 0.4시간 더 약간 더 긴 것으로 추정되어 큰 차이가 없음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노년층이 청년층 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비교적 높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
 - 2016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세대별 평일 여가시간은 노년층 1인 가구가 약 5시간, 청년층은 약 3시간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하지만 영향분석 결과, 노년층 1인 가구일 때 보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이 0.5시간 더 짧아져, 그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음
 - 즉, 절대적인 노년층의 평일 여가시간이 청년층 보다 더 길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평일 및 휴일 여가시간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1인 가구는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평일 여가시간 약 4시간, 휴일 여가시간 6시간으로 파악됨
 - 또한 도시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가구소득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짧고, 휴일 여가시간은 비슷함. 특히 가구소득은 다른 특성들 보다 평일 여가시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일 여가시간은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약 5시간 중반인 반면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 후반 ~ 3시간 초반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작은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 비하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일 여가시간 1.2시간, 휴일 여가시간 1.1시간 더 짧아 다른 특성에 비해 비교적 영향력의 정도가 큼
 - 이러한 소득에 의한 여가시간의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다인 가구보다 더 두드러짐

- 주된 여가활동이 휴식활동인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약 4시간, 휴일 약 6시간으로 그 외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길게 나타남
- 또한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 보다 “문화예술활동”이나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짧아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다인 가구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2. 주요특징

- 1인 가구의 여가시간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인 가구의 평균 여가시간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1인 가구의 평균 여가시간이 다인 가구 보다 평균 약 한시간 가량 길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는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의 여가 시간 외 기타 활동에 대한 차이로 평균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가구원 수”가 직접적 요인이 될 수는 없음을 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 소득에 의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음
 - 즉, 성별, 세대별 요인에 의해 여가시간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소득은 여가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근로시간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 양적인 측면의 여가활동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됨²⁶⁾
 - 특히, 소득의 영향은 1인 가구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이 낮더라도 다른 기타 가사 및 육아 등의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26) 여가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가사 등 다른 활동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게 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상 해당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특징임
 - 이는 1인 가구 중 휴식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 보다는 문화예술이나 여행 활동과 같은 비교적 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의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단, 여가시간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총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가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참여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제 5장과 제 6장에서는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여행활동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변화추세, 다인가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각 활동 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여가의 질적인 참여” 의 관점에서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5장

1인 가구의 문화예술활동 심층 분석

제1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현황분석

- ‘여가 시간’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양적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지표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앞서 분석한 여가시간은 휴식활동 외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모든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임
- 이에 여가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문화예술행사 관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문화향유의 다양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지표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²⁷⁾의 변화와 추이를 파악하고, 응답자의 미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1. 변화 추세

- 2012~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표 5-1〉 참고)
 - 1인 가구 기준, 2012년 41.9%에서 2019년 66.6%로 2012년 대비 24.7%p 증가함

2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전체 국민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66.6%)은 3인 이상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8.5%보다 21.9%p 낮음
- 하지만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비교적 더 크게 증가하여 다인 가구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 2012년 기준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차이는 33.1%p 였으나 2019년 21.9%p로 차이가 줄어들음

〈표 5-1〉 가구원수 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단위: %)

구분	2012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전체	69.6	78.3	81.5	81.8
1인 가구	41.9	50.2	68.3	66.6
2인 가구	43.6	57.4	63.4	69.6
3인 이상 가구	75.0	84.5	87.8	88.5

참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

3. 특성별 분석

가.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

- 여가시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파악하기 위해 주된 개인 및 가구 특성인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별’, ‘월평균 소득대별’로 비교 분석함
 - 이를 위해 특성 간 비교, 변화추이, 다인 가구와의 비교 순으로 분석
- 해당 분석 또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2016~2019년 자료를 이용함

1) 성별

- (1인 가구 성별 비교) 1인 가구의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함(〈표 5-2〉 참고)
 - 2019년 남성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1.9%로 여성 1인 가구(61.4%)보다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변화 추이 분석) 2016 ~ 2019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증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 1인 가구에서 크게 증가함
 -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65.7%에서 2019년 71.9%로 6.2%p 증가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41.3%에서 2018년 62.2%로 크게 증가(20.8%p)한 것이 특징이며, 이후 2019년 61.4%로 60%대 관람률을 유지
- (다인 가구와 비교) 남성과 여성 모두 1인 가구 보다 3인 가구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남성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71.9%) 보다 남성 3인 이상 다인 가구(87.7%)가 약 15.8%p 더 높음
 - 한편 2019년 여성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78.7%)은 여성 3인 이상의 다인 가구(91.0%) 보다 약 27.9%p 더 높아 남성보다 그 격차가 큰 것이 특징임

2) 세대별

- (1인 가구 세대별 비교)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가장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관람하였고 그 다음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순임(〈표 5-2〉 참고)
 - 2019년 기준 청년층 96.3%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중년층 78.7%, 장년층 58.4%, 노년층 41.8% 순임
 -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격차는 54.5%p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변화 추이 분석) 2016~2019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청년층 중년층의 경우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크게 증가함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96.5%에서 2019년 96.3%로,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78.2%에서 2019년 78.7%로 거의 변화 없음
- 한편 장년 1인 가구는 2016년 47.2%에서 2019년 58.4로 11.1%p 증가, 노년 1인 가구는 2016년 29.0%에서 2019년 41.8%로 12.7%p 증가하여 청년, 중년층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다인 가구와 비교) 세대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해 보면,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비슷한 반면 노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96.3%)은 청년 3인 이상 다인 가구(96.0%)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반면 2019년 노년 1인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41.8%)는 노년 3인 이상 가구 58.4%보다 약 16.7%p 높아 비교적 크게 차이 남

〈표 5-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6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가구 전체	50.2	57.4	84.5	68.3	63.4	87.8	66.6	69.6	88.5
남성	65.7	56.0	82.8	75.8	60.9	86.3	71.9	67.3	87.7
여성	41.3	58.8	86.1	62.2	65.8	89.4	61.4	72.0	89.3
청년층	96.5	95.2	93.6	94.8	95.1	95.5	96.3	94.9	96.0
중년층	78.2	78.5	87.6	88.6	81.1	90.5	78.7	85.5	91.0
장년층	47.2	63.6	74.5	69.9	64.1	80.3	58.4	72.5	82.3
노년층	29.0	42.7	48.9	43.8	54.5	55.0	41.8	53.3	58.4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도시규모별

- (1인 가구 도시규모별 비교) 1인 가구의 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표 5-3〉 참고)
 - 2019년 기준 대도시 1인 가구 71.3%, 중소도시 1인 가구 68.6%, 읍면지역 1인 가구 56.3%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음

- (변화 추이 분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1인 가구의 읍면 지역에서 크게 증가함
 - 대도시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60.5%에서 2019년 71.3%로 10.8%p 증가함
 - 한편 읍면지역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32.2%에서 2018년 54.9%로 크게 증가한 후 2019년 56.3%로 총 24.0%p 증가
 - 즉,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1인 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다인 가구와 비교)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다인 가구에 비교적 낮은 가운데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 2019년 대도시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71.3%)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89.1%)보다 약 17.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1인 가구는 3인 이상 다인 가구에 비하여 각각 22.0%p, 25.7%p 낮아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4) 월평균 가구소득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별 비교)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가장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관람함 (<표 5-3> 참고)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50.8%, 100만원대 63.4%, 200만원대 82.6%, 300만원 이상 81.9%로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변화 추이 분석)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1인 가구에서 크게 개선되는 추세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2016년 31.7%에서 2019년 50.8%로 19.1%p 증가
 - 반면 가구소득 200만원대인 1인 가구와, 300만원 이상의 1인 가구의 경우 격차는 각각 -0.7%p, 1.2%p로 거의 변화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다인 가구보다 비교적 큼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와 300만원 이상인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관람률 격차는 2016년 49.0%p, 2018년 46.0%p, 2019년 31.1%p
 -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인 이상 가구와 300만원 이상 3인 이상 가구 간 격차는 2016년 53.7%p, 2018년 25.8%p, 2019년 19.3%p
- (다인 가구와 비교) 가구 월평균 소득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반면, 그 외 소득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19년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50.8%)는 3인 이상 다인가구(70.8%)에 비해 20.0%p낮아 비교적 크게 차이 남
 - 그 외, 소득 대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거의 동일함

〈표 5-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6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가구 전체	50.2	57.4	84.5	68.3	63.4	87.8	66.6	69.6	88.5
대도시	60.5	61.4	85.7	72.0	71.9	89.8	71.3	73.3	89.1
중소도시	56.4	63.6	85.7	72.1	63.2	87.3	68.6	73.4	90.6
읍면지역	32.2	44.6	77.9	54.9	51.4	83.7	56.3	59.3	82.0
100만원미만	31.7	30.0	32.8	44.0	34.5	63.2	50.8	45.2	70.8
100만원대	54.6	42.9	50.8	66.3	53.2	61.4	63.4	58.1	63.6
200만원	83.3	63.6	74.7	84.6	64.4	82.1	82.6	66.8	82.9
300만원 이상	80.6	77.9	86.5	90.0	75.2	89.1	81.9	82.5	90.1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나.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²⁸⁾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별 분석결과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매우 적었음
(〈표 5-4〉 참고)
 - 2019년 기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5.5%로 1인 가구 전체 관람률 수준(66.6%)에 21.1%p 낮아 크게 차이 남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반면 상대적으로 동적 여가활동인 “취미오락”, “스포츠활동”, “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²⁹⁾
 - 취미오락활동을 주로 참여하는 경우 2018년 85.1%, 2019년 77.3%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 스포츠 활동(2018년: 83.7%, 2019년 69.7%), 사회활동(2018년 75.5%, 2019년 65.2%) 순 이었음
 - 즉, 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모든 여가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특히, 주 여가활동이 “휴식활동” 인 1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낮은 것이 특징임
 - 주 여가활동이 “휴식활동”인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76.5%)보다 약 31.0%p 낮아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남

28) 주 여가활동별 문화예술관람률은 「국민여가조사」와 「국민문화활동조사」를 통계적으로 매칭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29) 단,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함

〈표 5-4〉 가구원수별·여가활동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1인 가구 전체	68.3	63.4	87.8	66.6	69.6	88.5
문화예술활동	84.7	70.1	95.8	54.2	92.9	92.6
스포츠활동	83.7	69.2	87.9	69.7	67.7	84.8
여행활동	91.2	100.0	84.8	38.6	72.8	92.3
취미오락활동	85.1	81.3	90.8	77.3	77.6	88.4
휴식활동	49.0	48.6	77.4	45.5	52.4	76.5
사회활동	75.5	63.7	92.6	65.2	59.9	87.6

참고: 1.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2.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경우 관람활동과 참여활동이 모두 포함한 개념임

다. 세부 특성별 분석³⁰⁾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또한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세부 특성별 분석고 또한, 1인 가구의 특성별 특징,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다인 가구와 비교 순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성별 심층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효 표본수를 할 수 있는 2018~2019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1) 성별·세대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모두 청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으며, 특히 여성·청년층이 가장 높음(〈표 5-5〉 참고)
 - 2019년 기준 여성·청년층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99.0으로 거의 대부분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남성·노년층 1인 가구 94.7% 순이었음

30) 세부 특성별 분석의 경우, 유효표본이 적아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현황파악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하기를 권장함

- (세부특성별 현황) 반면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모두 노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남성·노년층 46.3%, 여성·노년층 40.3%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성별 1인 가구의 청년층, 노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 보다 더 크게 차이 남
 - 여성 1인 가구 대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53.5%p, 2019년 58.7%p로 남성 1인 가구의 격차(2018년 50.5%p, 2019년 47.9%p)보다 차이가 약간 더 큼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 ~ 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성별·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모든 특성에서 1인 가구가 3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그 격차가 큼
 - 2019년 기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남성·장년층 28.6%p, 남성·노년층 16.5%p, 여성·장년층 18.3%p, 여성·노년층 14.7%p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5-5〉 성별·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전체	75.8	60.9	86.3	71.9	67.3	87.7
청년층	93.3	93.6	95.0	94.7	93.9	95.9
중년층	85.5	78.9	88.1	73.7	84.2	88.2
장년층	65.7	57.7	78.0	52.6	68.6	81.2
노년층	43.1	53.4	54.3	46.8	49.7	63.3
여성 전체	62.2	65.8	89.4	61.4	72.0	89.3
청년층	97.5	96.9	96.1	99.0	96.1	96.1
중년층	94.8	84.7	92.8	91.1	88.2	93.6
장년층	73.2	68.7	82.9	65.3	75.5	83.6
노년층	44.0	55.7	55.6	40.3	57.1	55.0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2) 성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대도시의 경우 관람률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높았음(〈표 5-6〉 참고)
 - 2019년 기준 남성·대도시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4.5%로 가장 높았음
- (세부특성별 현황) 반면 모든 성별에서 읍면 도시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여성·읍면지역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함
 - 2019년 여성·읍면지역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1%로 과반이 관람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임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를 살펴보면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 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여성 1인 가구 대상,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15.8%p, 2019년 16.8%p로 남성 1인 가구의 격차(2018년 13.1%p, 2019년 11.1%p)보다 약간 더 높음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성별·도시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일반적으로 1인 가구가 3인 가구 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읍면지역의 경우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여성·읍면 지역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34.5%p, 2019년 31.8%p로 가장 크게 차이남
 - 반면 남성·대도시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8.2%p, 2019년 14.1%p로 그 격차가 비교적 작은 수준임

〈표 5-6〉 성별·도시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전체	75.8	60.9	86.3	71.9	67.3	87.7
대도시	79.3	67.7	87.5	74.5	69.6	88.7
중소도시	75.7	66.2	86.2	73.8	69.3	89.5
읍면	66.2	45.2	83.7	63.5	61.4	81.1
여성 전체	62.2	65.8	89.4	61.4	72.0	89.3
대도시	65.0	75.7	92.0	67.9	77.1	89.6
중소도시	69.0	60.1	88.5	63.2	77.9	91.7
읍면	49.2	57.4	83.7	51.1	57.3	82.9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남성·1인 가구와 여성·1인 가구 모두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으며 특히, 여성·200만원대와 여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가 비교적 높은 반면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가 가장 작았음(〈표 5-7〉 참고)

 - 2019년 기준 여성·200만원 1인 가구 92.3%가 여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 91.8%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2019년 기준 여성·100만원대 미만 1인 가구는 47.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성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를 비교해보면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 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 가구 대상,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문화 예술 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54.9%p, 2019년 44.8%p로 남성 1인 가구의 격차(2018년 29.9%p, 2019년 18.1%p)보다 비교적 차이가 큼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성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

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여성·1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격차는 24.6%p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표 5-7〉 성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전체	75.8	60.9	86.3	71.9	67.3	87.7
100만원미만	58.3	36.3	52.1	59.9	41.0	69.0
100만원대	63.9	51.2	55.1	66.2	53.0	66.6
200만원대	82.8	57.4	82.7	78.3	64.2	82.5
300만원이상	88.3	75.4	87.4	78.0	82.1	89.0
여성 전체	62.2	65.8	89.4	61.4	72.0	89.3
100만원미만	39.0	32.5	66.9	47.0	49.1	71.7
100만원대	67.6	55.6	68.5	61.4	64.0	60.8
200만원대	87.0	69.6	81.4	92.3	69.6	83.3
300만원이상	93.9	74.9	90.8	91.8	82.9	91.1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4) 세대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1인 가구의 성별·도시규모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도시규모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청년층에서 높고 노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8〉 참고)
 - 2019년 기준 청년층과 중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가 규모가 클수록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없었음
 - 또한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세대별·도시 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청년층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대도시 일수록 그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격차는 장년층·대도시 28.0%

〈표 5-8〉 세대별·도시규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층 전체	94.8	95.1	95.5	96.3	94.9	96.0
대도시	96.9	97.8	96.5	98.1	97.1	96.1
중소도시	92.8	96.8	95.4	94.9	92.3	97.1
읍면	92.7	85.7	92.9	94.2	95.6	92.7
중년층 전체	88.6	81.1	90.5	78.7	85.5	91.0
대도시	92.3	90.7	93.4	85.5	91.0	91.8
중소도시	83.6	79.8	89.3	76.9	84.3	92.6
읍면	92.7	64.8	85.6	70.4	77.6	84.6
장년층 전체	69.9	64.1	80.3	58.4	72.5	82.3
대도시	65.6	72.1	81.7	55.5	75.6	83.6
중소도시	76.8	61.6	79.7	63.1	76.7	83.9
읍면	65.9	56.6	77.7	56.2	63.5	76.4
노년층 전체	43.8	54.5	55.0	41.8	53.3	58.4
대도시	45.3	64.6	59.9	41.1	57.6	61.5
중소도시	47.8	52.9	50.8	42.6	55.2	57.5
읍면	38.2	42.1	51.8	41.5	45.7	53.4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5) 세대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세대별·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분석결과, 청년층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가장 높은 한편 그 외 세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음 (〈표 5-9〉 참고)
 -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는 소득별과 큰 차이 없이 90%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의 소득 100만원대 미만의 경우 39.1%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세대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를 비교해보면, 중년층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중년층 51.9%p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장년층 29.1%p, 노년층 15.8%p 순이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세대별·가구 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비교 해 보면, 청년층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장년층·월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13.8%p, 2019년 22.9%p
 - 노년층·월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8년 13.7%p, 2019년 27.1%p

〈표 5-9〉 세대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층 전체	94.8	95.1	95.5	96.3	94.9	96.0
100만원미만	95.4	86.1	100.0	98.8	78.5	93.0
100만원대	96.0	80.4	81.3	93.2	87.8	92.5
200만원대	93.4	94.2	90.0	97.5	94.3	90.1
300만원이상	96.1	96.0	96.1	93.4	96.4	96.9
중년층 전체	88.6	81.1	90.5	78.7	85.5	91.0
100만원미만	-	100.0	100.0	30.9	52.6	63.2
100만원대	85.4	47.1	77.5	70.5	57.6	63.9
200만원대	88.7	81.5	86.4	85.5	69.7	84.5
300만원이상	91.5	83.8	91.0	82.7	91.6	92.3
장년층 전체	69.9	64.1	80.3	58.4	72.5	82.3
100만원미만	52.4	30.4	66.2	48.1	50.1	71.0
100만원대	64.8	54.3	53.3	52.3	63.1	50.8
200만원대	74.0	62.4	74.7	61.9	65.4	74.0
300만원이상	82.1	69.2	81.6	72.0	79.3	84.0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노년층 전체	43.8	54.5	55.0	41.8	53.3	58.4
100만원미만	34.4	33.7	48.1	39.1	43.7	66.2
100만원대	55.1	52.7	50.3	47.0	53.6	42.4
200만원대	54.5	61.1	52.4	55.0	59.2	45.3
300만원이상	75.5	66.8	56.9	54.9	60.5	60.9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6)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분석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음(〈표 5-10〉 참고)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읍면 지역에서 비교적 큼
 - 2019년 기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읍면지역 37.4%p로 대도시(28.7%p), 중소도시(27.6%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2018~2019년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음

〈표 5-10〉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대도시 전체	72.0	71.9	89.8	71.3	73.3	89.1
100만원미만	42.9	52.1	93.0	53.9	59.8	75.2
100만원대	65.5	65.0	59.6	71.0	63.5	68.4
200만원대	87.4	69.4	83.6	83.9	69.6	86.6
300만원이상	89.7	81.1	90.7	82.7	82.7	90.0
중소도시 전체	72.1	63.2	87.3	68.6	73.4	90.6
100만원미만	52.3	18.1	56.1	53.6	39.9	69.0
100만원대	72.2	52.2	64.4	61.2	60.9	61.3
200만원대	81.9	61.2	80.5	84.4	68.6	84.8
300만원이상	90.5	75.7	88.4	81.2	85.0	92.1
읍면 전체	54.9	51.4	83.7	56.3	59.3	82.0
100만원미만	37.1	30.7	26.3	44.8	34.5	65.9
100만원대	56.8	41.0	61.1	53.9	49.1	61.5
200만원대	82.4	60.0	82.4	75.5	60.2	73.6
300만원이상	89.5	63.7	85.7	82.1	77.3	85.0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제2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영향분석

- 제 1절에서는 여가시간 분석과 동일하게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변화와,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을 실시함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빈도 분석은 변화의 추이나 각 특성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문화예술행사관람률 또한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³¹⁾
 - 분석을 위해 2018~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자료와 「국민여가조사」를 통계적으로 매칭한 자료³²⁾를 이용하였음
 - 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 분석 모형을 설명하고, 1인 가구의 특성별 영향,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함
- 해당 분석 또한 여가시간의 영향분석과 마찬가지로 계량 모형의 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보다는 추정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주목하여 서술하였음³³⁾

1. 분석방법³⁴⁾

-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관람’, ‘비관람’의 두 가지 값을 가지므로 실증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31) 계량모형을 사용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하나의 변인만 변화할 경우 여가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

32) 향후 분석 시, 매칭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18~2019년 자료만 분석에 포함함

33) 계량분석의 경우는 수학이나 통계적 설명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되, 향후 추정된 값을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기를 권장함

34) 계량모형의 방법론은 Lee(2009)을 참고하여 서술함

$$y_i^* = x_i' \beta + u_i, \quad y_i = 1[y_i^* > 0]$$

$$x_i = (1, x_{i2}, \dots, x_{ik})', \quad \beta = (\beta_1, \dots, \beta_k)$$

$$x_i \perp\!\!\!\perp u_i, \quad u_i \sim N(0, \sigma) \quad i = 1, 2, \dots, n \quad ,$$

- y_i^* 는 문화예술행가의 관람 의지를 의미하는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_i 는 문화예술 관람을 한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문화예술관람 참여여부인 ‘종속변수’로, x_i 는 총 k 개의 개인특성 변수와 가구 특성변수, 가구원수 등의 ‘독립변수’, u_i 는 오차항, β 는 추정해야 할 모수 벡터임³⁵⁾

- 종속변수가 두 가지 값을 가지는 이변량(Binary) 변수인 경우로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함³⁶⁾
- 프로빗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우선 위 식을 오차항의 표준편차(σ)로 나누어 오차항을 정규 분포로 표준화(Normalization)하면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문화예술 관람을 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P(y = 1|x) = P\left(\frac{u}{\sigma} \geq -x' \frac{\beta}{\sigma} | x\right) = \Phi\left(x' \frac{\beta}{\sigma}\right) = \Phi(x' \alpha), \quad \alpha \equiv \frac{\beta}{\sigma}$$

- 이에 로그-우도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³⁷⁾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³⁸⁾을 이용

$$\sum_{i=1}^I \{y_i \ln \Phi(x_i \alpha) + (1 - y_i)(1 - \ln \Phi(x_i \alpha))\}$$

- 즉, 프로빗의 경우는 원래 추정하고자 하는 값 β 가 아닌 오차항의 표준편차를 나누어준 α 값이 추정됨

35) 본 모형은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영향, 즉 β 를 추정하기 위함임

36) 로짓모형(Logit Model)또한 이용하나 추정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

37) 각 데이터 샘플에서 후보 분포에 대한 높이(즉, 기여도)를 계산하여 곱한 것을 의미

38) 최우추정법은 모수적인 데이터 밀도 추정방법을 의미함

- 프로빗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개인적 특성 및 가구특성과 시간(연도)이 모두 동일한 경우,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
-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개인적 특성 및 가구특성과 시간(연도)가 동일한 경우,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함
- 하지만 프로빗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을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단순히 추정된 계수의 부호나 상대적 비교를 통한 해석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한계효과란, 독립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확률 변화를 의미
- 만약 독립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frac{\partial E(y|x_i)}{\partial x_{ik}} = \frac{\partial \Phi(x_i' \alpha)}{\partial x_{ik}} = \phi(x_i' \alpha) \alpha_k$$

- 단, 개인마다 한계효과가 다르게 추정되므로 본 분석에서는 평균한계효과 ($N^{-1} \sum_i \phi(x_i' \alpha) \alpha_k$)를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 한편, 독립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begin{aligned} E(y|x_1, \dots, x_k = 1) - E(y|x_1, \dots, x_k = 0) &= A(x, \alpha) \\ &\equiv \Phi(\alpha_1 + \alpha_2 x_2 + \dots + \alpha_{k-1} x_{k-1} + \alpha_k) \\ &\quad - \Phi(\alpha_1 + \alpha_2 x_2 + \dots + \alpha_{k-1} x_{k-1}) \end{aligned}$$

- 마찬가지로 평균한계효과($N^{-1} \sum_i A(x_i, \alpha)$)를 추정함

- 여기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른 요인과 시간이 동일할 경우, 각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의 변화로 해석됨
 - 만약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라면 한 단위 변화 시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의

변화를 의미하게 됨

- 한편 독립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이라면 (예. 기혼) 0에서 1로 변화 할 때,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의 변화임
- 첫째,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라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예.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의 변화
- 둘째, 독립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이라면 (예. 기혼) 0에서 1로 변화 할 때,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의 변화
- 셋째, 독립변수가 몇 가지 범주(Category)로 이루어 진 경우(예. 도시규모)는 한 가지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바뀌었을 때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하게 됨

2. 분석결과³⁹⁾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영향 분석” 또한 앞선 여가시간분석과 마찬가지로,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가구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다인 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1인 가구의 다인가구, 1인 가구의 특성별 추정 결과를 비교함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함
 - 특성별 분석을 위해서 앞서 사용한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월평균 가구 소득 외,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과 시간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함
 - 단, 앞선 현황분석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구원수 및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소득대별 위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
- 또한 ‘주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음⁴⁰⁾

39)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계효과 추정결과 위주로 해석함

40) 여가시간의 “영향분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이나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는 각각 1.5%, 0.5%로 매우 작아 모수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

가. 다인 가구와 비교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의 문화예술행사관람률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일 때 보다 참여할 확률이 줄어듦(표 5-11) 참고)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3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약 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나. 특성별 분석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노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여성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 참여할 확률은 5%p 감소하여 약간 변화함
 - 또한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은 각각 41.9%p, 24.0%p, 7.5%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가장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또한 1인 가구 대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 거주자 보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음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문화예술행사관람에 참여할 가능성이 3.9%p증가함
 -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9.5%p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특성분석) 해당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대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세대별 차이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남

-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청년층이 노년층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은 27.4%p 증가함
- 이는 1인 가구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변화(41.9%p)보다는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의 경우 낮은 경우 비교적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인 이상 가구는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보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이 4.8%p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이는 1인 가구의 결과(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문화예술행사 참여 확률이 증가)와 상반되는 결과임

다.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⁴¹⁾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다른 여가 활동보다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영향력의 크기는 여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1인 가구 특성분석) 특히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문화예술활동”이나 “사회활동 및 기타”, “스포츠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두드러짐
 -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문화예술행사관람률이 약 20.6%p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여가활동에 비하여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그 외, “사회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각각 8.1%p, 7.2%p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41)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

- (다인 가구와 비교) 3인 이상의 다인 가구 또한 “문화예술활동” 이나 “사회활동”,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1인 가구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임
 - 문화예술활동을 주로 하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약 20.5%p 높아, 1인 가구의 추정결과(20.6%p)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한편 스포츠관람활동을 주로 하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5.4%p 높아지며, 이는 1인 가구의 추정결과(7.2%p)와 보다는 약간 낮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

〈표 5-1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프로빗 분석 결과

변수	계수추정				한계효과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전체	1인	2인	3인이상
1인 가구	-0.099* (0.0549)	-	-	-	-0.025* (0.013)	-	-	-
2인 가구	-0.023 (0.035)	-	-	-	-0.010 (0.0088)	-	-	-
남성	-0.201*** (0.029)	-0.187*** (0.062)	-0.171*** (0.049)	-0.224*** (0.041)	-0.050*** (0.007)	-0.052*** (0.017)	-0.055*** (0.016)	-0.049*** (0.009)
청년층	1.250*** (0.064)	1.522*** (0.111)	1.272*** (0.127)	1.249*** (0.101)	0.311*** (0.015)	0.419*** (0.028)	0.408*** (0.040)	0.274*** (0.022)
중년층	0.789*** (0.053)	0.871*** (0.112)	0.719*** (0.096)	0.970*** (0.090)	0.196*** (0.013)	0.240*** (0.030)	0.231*** (0.030)	0.213*** (0.020)
장년층	0.365*** (0.044)	0.272*** (0.083)	0.205*** (0.059)	0.585*** (0.087)	0.091*** (0.011)	0.075*** (0.023)	0.066*** (0.019)	0.128*** (0.019)
고졸	0.290*** (0.041)	0.410*** (0.084)	0.250*** (0.060)	0.249*** (0.073)	0.072*** (0.010)	0.113*** (0.023)	0.080*** (0.019)	0.055*** (0.016)
대졸이상	0.577*** (0.051)	0.606*** (0.112)	0.654*** (0.088)	0.526*** (0.080)	0.143*** (0.012)	0.167*** (0.030)	0.210*** (0.028)	0.115*** (0.017)
기혼	-0.040 (0.048)	-0.020 (0.142)	0.166** (0.071)	-0.217*** (0.071)	-0.010 (0.012)	-0.005 (0.039)	0.053** (0.023)	-0.048*** (0.016)
직업있음	-0.103*** (0.033)	-0.174** (0.086)	-0.019 (0.054)	-0.153*** (0.047)	-0.026*** (0.008)	-0.0478** (0.024)	-0.006 (0.018)	-0.034*** (0.010)
대도시	0.187*** (0.037)	0.142** (0.071)	0.106* (0.057)	0.227*** (0.054)	0.047*** (0.0093)	0.039** (0.019)	0.034* (0.018)	0.050*** (0.012)

변수	계수추정				한계효과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전체	1인	2인	3인이상
중소도시	0.168*** (0.039)	0.062 (0.074)	0.113* (0.060)	0.214*** (0.056)	0.042*** (0.010)	0.017 (0.021)	0.036* (0.019)	0.047*** (0.012)
100만원대	0.008 (0.056)	0.043 (0.090)	0.052 (0.086)	-0.631*** (0.217)	0.002 (0.014)	0.012 (0.025)	0.017 (0.028)	-0.138*** (0.048)
200만원대	0.158*** (0.058)	0.327*** (0.112)	0.248*** (0.087)	-0.537*** (0.190)	0.039*** (0.014)	0.090*** (0.031)	0.080*** (0.028)	-0.118*** (0.042)
300만원 이상	0.410*** (0.060)	0.346*** (0.119)	0.464*** (0.092)	-0.218 (0.184)	0.102*** (0.015)	0.095*** (0.033)	0.149*** (0.029)	-0.048 (0.040)
문화예술 활동	0.829*** (0.136)	0.750*** (0.270)	0.711*** (0.243)	0.937*** (0.200)	0.206*** (0.034)	0.206*** (0.074)	0.228*** (0.078)	0.205*** (0.044)
스포츠 활동	0.233*** (0.054)	0.260* (0.136)	0.187* (0.106)	0.248*** (0.067)	0.058*** (0.013)	0.072* (0.037)	0.0599* (0.034)	0.054*** (0.015)
여행활동	0.371 (0.272)	0.0507 (0.384)	0.834* (0.427)	0.282 (0.328)	0.092 (0.068)	0.014 (0.106)	0.268* (0.137)	0.062 (0.072)
취미오락 활동	0.243*** (0.039)	0.222*** (0.079)	0.353*** (0.075)	0.212*** (0.049)	0.060*** (0.010)	0.061*** (0.022)	0.113*** (0.024)	0.047*** (0.011)
사회활동 및 기타	0.249*** (0.058)	0.295*** (0.113)	0.0821 (0.103)	0.290*** (0.082)	0.062*** (0.014)	0.081*** (0.031)	0.026 (0.033)	0.064*** (0.018)
2019년	-0.114*** (0.027)	-0.251*** (0.056)	-0.0722 (0.047)	-0.114*** (0.038)	-0.028*** (0.007)	-0.069*** (0.016)	-0.023 (0.015)	-0.025*** (0.008)
상수항	-0.501*** (0.071)	-0.557*** (0.070)	-0.722*** (0.103)	0.181 (0.199)	-	-	-	-
사례수	19,755	3,948	4,919	10,888	19,755	3,948	4,919	10,888
로그비	-3.860×107	-4.212×106	-1.060×107	-2.360×107	-	-	-	-

참고 1.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제3절 소결

- 여가시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결을 통해, “제1절 특성분석”과 “제2절 영향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1인 가구의 변화,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함⁴²⁾.

1. 결과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2~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66.6%로 2012년 대비 24.7%p, 2016년 대비 16.4%p 증가함
 - 특히, 2016~2019년 동안 1인 가구 중 여성(20.8%p), 읍면지역(24.0%p),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9.1%p)인 가구에서 크게 증가함
- (다인 가구와 비교)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인 가구와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66.6%)은 3인 이상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8.5% 보다 21.9%p 낮음
 - 영향분석 결과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인 가구 일 때,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 3%p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문화예

42)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세부적인 요인에 대하여 분석 하기 보다는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결과 위주로 작성함

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간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여성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2년 41.2%에서 2019년 61.4%로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성 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성별의 영향은 오히려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노년층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가장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른 특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남

- 2019년 노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1.8%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타남(2019년 기준 청년층과 노년층 격차는 54.5%p)
- 또한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은 각각 41.9%p, 24.0%p, 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며 이러한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더 큼
- 즉,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청년층이 노년층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의 증가(27.4%p)보다 1인 가구(41.9%p)가 더 크게 차이남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9년 56.3%로 2012년(32.3%)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대도시(71.3%p)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1인 가구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문화예술행사관람에 참여할 가능성이 3.9%p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0.8%로 2012년(31.7%)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높은 가구 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9.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3인 이상 가구의 추정결과와 상반됨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보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참여할 확률이 4.8%p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여가 참여 유형별)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별 분석결과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매우 적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2019년 기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5.5%로 1인 가구 전체 관람률 수준(66.6%)에 21.1%p 낮아 크게 차이 남
 - 또한 “문화예술활동”과 “사회활동”,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각각 20.6%p, 8.1%p, 7.2%p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2. 주요특징

-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가 관람률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인 가구와의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 이후 약 60대 이상을 기록하고 여 2012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3인 이상 가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임(21.9%p 차이)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인 가구 일 때,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문화 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 3%p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문화예술행사 관람

률이 취약한 가운데 세대에 따라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음

- 이는 1인 가구의 노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그리고 3인 이상의 노년층에 비해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보다 크게 나타남. 즉,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노년층 다인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참여에 더 취약하다고 한 것으로 추측됨
 - 이는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 보다, 휴식활동 외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같은 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참여를 위한 동반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중 휴식활동과 같은 정적인 활동 보다 비교적 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의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6장

1인 가구의 여행활동 심층 분석

제1절 여행일수 현황분석

- 문화예술행사관람률 외, '여행일수' 또한 질적 측면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지표라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2019년 여행참여율은 92.4%로 거의 대부분이 여행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참여 여부가 아닌 '여행일수'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정책 수립의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절에서는 1인 가구의 '여행일수'의 변화와 추이를 파악하고, 다인가구와의 비교,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관련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여기서, '여행일수'는 지난 1년간 개인의 평균 여행일 수를 의미함

1. 변화 추세

- 2018년과 2019년의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평균 약 11일로 나타남
 - 1인 가구 기준, 여행일수는 2018년 11.0일로 2019년 11.7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다인 가구와의 비교

- 가구원 수 규모에 따른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1인 가구는 3인 이상 가구보다 약간 짧으나 큰 차이가 없음(〈표 6-1〉 참고)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1.7일로 3인 이상 가구의 13.7일보다 약 2일 차이 남

〈표 6-1〉 가구원수 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전체	12.4	12.9
1인 가구	11.0	11.7
2인 가구	10.4	11.6
3인 이상 가구	13.5	13.7

참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

3. 특성별 분석

가.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분석

- 여가시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특성별 분석을 위하여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별’, ‘월평균 소득대별’로 구분하여 비교함
 - 분석내용을 특성 간 비교, 변화추이, 다인가구와의 비교 순으로 제시함
- 단,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부터 조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2018년 이전 자료와의 비교가 어려움
- 이에, 본 분석은 2018년과 2019년 총 2차년도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함

1) 성별

- (1인 가구 성별 비교)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길지만 큰 차이가 없음(〈표 6-2〉 참고)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남성 1인 가구는 12.8일로 여성 1인 가구 10.7일 보다 약 1.2배 길게 나타남
- (변화 추이 분석) 2018년과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여행일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남성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12.4일, 2019년 12.8일, 여성 1인 가구의 여행일수 2018년 9.7일, 2019년 10.7일로 큰 변화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여행일수가 다소 긴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여성 3인 이상의 다인 가구 여행일수는 14.1일로 여성 1인 가구(10.7일) 보다 1.3배로 긴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남성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3.4일로 남성 1인 가구(12.8일)와 큰 차이가 없음

2) 세대별

- (1인 가구 세대별 비교) 2018~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세대별 여행일수를 살펴 보면, 노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표 6-2〉 참고)
 -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7.3일로 청년 1인 가구(15.2일), 중년 1인 가구(14.1일)와 약 2배, 장년 1인 가구(10.9일)와 약 1.5배 차이
- (변화 추이 분석) 한편 2018~2019년 동안 세대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2018년 13.5일 에서 2019년 15.2일로 약 2일 증가 해 큰 변화가 없음
 - 노년 1인 가구 또한, 2018년 6.5일에서 2019년 7.3일로 비슷한 수준임
- (다인 가구와 비교) 세대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를 비교하면 대부분 세대에서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15.2일)는 3인 이상 가구 13.3일 보다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 없음
 - 2019년 노년 1인 가구(7.3일) 또한 3인 이상 가구의 8.0일과 비슷한 수준임

〈표 6-2〉 가구원수별·개인 특성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여행일수	11.0	10.4	13.5	11.7	11.6	13.7
남성	12.4	10.8	13.7	12.8	12.1	13.4
여성	9.7	9.9	13.3	10.7	11.0	14.1
청년층	13.5	14.8	12.3	15.2	14.5	13.3
중년층	14.0	13.3	16.4	14.1	16.1	15.2
장년층	12.2	12.1	13.5	10.9	12.1	13.7
노년층	6.5	7.3	7.0	7.3	8.9	8.0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도시규모별

- (1인 가구 도시규모별 비교)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여행일수는 비슷한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약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표 6-3〉 참고)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대도시 1인 가구 11.6일, 읍면지역 1인 가구 10.4일로 차이가 크지 않음
- (변화 추이 분석) 한편 2018~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도시규모별 여가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대도시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11.5일, 2019년 11.6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1인 가구의 또한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도시규모에 따른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세대에서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대도시 1인 가구 여행일수는 대도시 다인 가구 보다 1.1배 높아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1인 가구 여행일수는 중소도시 다인 가구 보다 평일 약 1.2배 길어 큰 차이 없음

4) 월평균 가구소득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별 비교) 1인 가구의 가구소득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됨(〈표 6-3〉 참고)
 - 2018년 기준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5.6일로,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 15.4일에 비하여 매우 짧음(2.8배 차이)
 - 한편 2019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7.6일로,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 15.1일과 2배 가량 차이나 격차가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큼
- (변화 추이 분석) 한편 2018~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가구 소득별 여행일수는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100만원대 1인 가구에서 약간 길어졌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음
 -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5.6일에서 2019년 7.6일로 약 1.4배 길어짐
 - 소득 100만원대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7.7일에서 2019년 10.2일로 약 1.3배 길어짐
 - 그 외 소득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소득대에서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이 다인 가구보다 약간 더 길거나 비슷한 가운데, 100만원대 미만의 경우만 다소 크게 차이 남
 - 2019년 기준 소득 100만원 미만 1인 가구 여행일수는 다인 가구 보다 약 1.4배 긴 것으로 나타남

〈표 6-3〉 가구원수별·가구 특성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여행일수	11.0	10.4	13.5	11.7	11.6	13.7
대도시	11.5	10.3	13.0	11.6	11.1	13.0
중소도시	11.5	10.7	14.3	12.7	13.4	14.8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읍면지역	9.3	10.0	12.9	10.4	10.0	13.0
100만원미만	5.6	4.6	15.8	7.6	7.8	11.0
100만원대	7.7	6.4	8.6	10.2	8.9	11.1
200만원	13.1	10.1	12.0	13.7	10.8	11.5
300만원 이상	15.4	13.0	13.6	15.1	13.8	13.9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나.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⁴³⁾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휴식활동하는 경우 기타 활동에 비하여 비교적 짧음(표 6-4) 참고)
 - 반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행일수는 2018년 10.2일 2019년 10.6일로 다른 활동에 비하여 짧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시간을 비교 해 보면,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높으나 크게 차이 없음

〈표 6-4〉 가구원수별·주 여가활동 유형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전체 여행일수	11.0	10.4	13.5	11.7	11.6	13.7
문화예술활동	11.6	12.5	15.2	9.5	21.8	16.0
스포츠활동	13.4	15.0	14.8	13.9	15.2	13.9
여행활동	14.4	8.6	10.7	12.5	14.4	9.6
취미오락활동	12.6	13.4	13.6	13.4	13.4	13.3
휴식활동	10.2	10.3	14.8	10.6	11.1	13.5
사회활동	11.4	10.9	15.1	12.2	12.9	14.7

참고: 1.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2.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경우 관람활동과 참여활동이 모두 포함한 개념임

43)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

다. 세부 특성별 분석⁴⁴⁾

- ‘여행일수’ 또한 1인 가구의 미시적 특성을 성별·세대별, 세대별·도시규모별, 세대별·가구소득별, 도시규모별·소득별, 총 6개로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특성별 특징, 특성 간 상대적 비교, 다인 가구와 비교를 살펴봄
- 특성별 심층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유효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18~2019년 데이터를 활용함

1) 성별·세대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성별·세대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여행일수가 높으며, 특히 노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표 6-5) 참고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특히, 2019년 기준 여성·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긴 반면 여성·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작음
 - 2019년 기준 여성·청년층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7.0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 남성·청년층 1인 가구 14.3일 순이었음
 - 반면 여성 노년층 1인가구의 여행일수는 7.1일로 가장 짧음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청년층, 노년층의 여행일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더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청년층과 노년층의 여행일수 격차는 남성 1인 가구 1.8배, 여성 1인 가구는 2.4배로 여성 가구에서 크게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보면, 여성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약간 더 많았으나 그 외 세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여성·청년층 1인 가구의 여행일수 또한 17.0일로 14.1일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임

44) 세부 특성별 분석의 경우, 유효표본이 작아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현황파악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하기를 권장함

〈표 6-5〉 성별·세대별 평균 여행 일수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여행일수	12.4	10.8	13.7	12.8	12.1	13.4
청년층	14.0	16.1	12.9	14.3	13.0	12.5
중년층	14.6	12.5	16.6	14.3	17.5	15.6
장년층	13.2	11.8	13.7	11.1	12.5	13.3
노년층	6.6	8.4	7.7	7.9	9.9	8.7
여성 여행일수	9.7	9.9	13.3	10.7	11.0	14.1
청년층	12.8	13.2	11.5	17.0	16.2	14.1
중년층	13.1	14.4	16.3	13.8	14.3	14.9
장년층	11.5	12.3	13.3	10.8	11.8	14.1
노년층	6.5	6.3	6.6	7.1	7.8	7.4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2) 성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성별·도시규모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도시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남(〈표 6-6〉 참고)
 - 2019년 기준 여성 대도시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1.1일로 여성 읍면지역 1인 가구 8.7일 보다 약 1.3배가량 높음
 - 반면 2019년 기준 남성 대도시 1인 가구의 여행일수 12.0일과 남성 읍면지역 1인 가구 여행일수는 12.6일로 거의 비슷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특히, 2019년 기준 남성 1인 가구가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여성·읍면지역 1인 가구가 가장 작음
 - 2019년 기준 남성·중소도시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3.9일로 여성·읍면지역 1인 가구 8.7일 보다 약 1.6배 더 높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읍면 지역 1인 가구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여성·읍면 지역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다인 가구보다 2018년 기준 1.8배, 2019년 기준 약 1.5배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도시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

〈표 6-6〉 성별·도시규모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여행일수	12.4	10.8	13.7	12.8	12.1	13.4
대도시	12.0	10.5	13.6	12.0	11.1	12.9
중소도시	13.2	11.9	14.2	13.9	14.6	14.3
읍면	12.1	10.2	13.0	12.6	10.5	12.8
여성 여행일수	9.7	9.9	13.3	10.7	11.0	14.1
대도시	11.1	10.1	12.5	11.1	11.1	13.2
중소도시	10.0	9.7	14.4	11.4	12.1	15.3
읍면	7.3	9.8	12.8	8.7	9.4	13.2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3)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성별·가구소득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일수 더 김(〈표 6-7〉 참고)

 - 2019년 기준 남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5.7일로 남성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 8.2일보다 약 1.9배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9년 기준 여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3.4일로 여성 1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 7.4일보다 약 1.8배 길었음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특히, 2019년 기준 여행일수는 남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고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서 가장 짧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는 남성·300만원 이상 1인 가구는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 보다 2.1배 더 김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와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서 다소 차이

 - 남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다인 가구보다 2018년 약 3.5배, 2019년 약 1.4배 더 긴 수준임
 - 또한 여성·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다인 가구보다 2018년 약 2.1배, 2019년 약 1.4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6-7〉 성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남성 여행일수	12.4	10.8	13.7	12.8	12.1	13.4
100만원미만	6.4	5.2	22.1	8.2	9.2	11.3
100만원대	7.6	7.1	7.5	8.5	9.6	9.6
200만원대	13.0	11.2	13.3	13.1	10.6	11.2
300만원이상	16.1	12.9	13.8	15.7	14.5	13.6
여성 여행일수	9.7	9.9	13.3	10.7	11.0	14.1
100만원미만	5.3	4.1	10.8	7.4	6.1	10.5
100만원대	7.8	5.7	9.8	11.1	8.2	12.4
200만원대	13.2	9.0	10.7	14.4	10.9	11.8
300만원이상	13.9	13.1	13.4	13.4	13.0	14.2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4) 세대별·도시규모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세대별·도시규모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큰 차이없이 청년층에서 높고 노년층에서 가장 짧게 나타남(〈표 6-8〉 참고)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9년 기준 여행일수는 청년층에서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높고, 노년층에서 또한 도시규모와 크게 상관없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세대별·도시규모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음

〈표 6-8〉 세대별·도시규모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 여행일수	13.5	14.8	12.3	15.2	14.5	13.3
대도시	13.0	14.6	11.4	14.5	13.6	11.7
중소도시	14.5	14.8	13.2	15.9	15.9	14.8
읍면	13.1	15.2	12.5	15.9	12.9	13.6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중년 여행일수	14.0	13.3	16.4	14.1	16.1	15.2
대도시	13.9	13.4	16.5	13.1	13.6	14.7
중소도시	14.3	13.5	16.5	16.7	22.7	16.3
읍면	13.6	12.6	16.0	11.3	11.2	13.8
장년 여행일수	12.2	12.1	13.5	10.9	12.1	13.7
대도시	10.9	12.0	13.0	10.3	12.0	13.5
중소도시	12.1	12.4	14.4	11.5	13.4	14.5
읍면	14.5	11.7	12.8	11.2	10.9	12.5
노년 여행일수	6.5	7.3	7.0	7.3	8.9	8.0
대도시	8.2	7.0	7.2	7.4	8.6	8.0
중소도시	5.6	7.0	7.4	6.9	9.6	7.7
읍면	5.4	8.0	6.6	7.6	8.5	8.8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5) 세대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세대별·가구소득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남 (<표 6-9> 참고)
 - 2019년 기준 청년·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여행일수가 16.3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청년·200만원 1인 가구, 중년·300만원 이상 1인 가구 순임
 - 반면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의 소득 100만원대 미만의 경우 6.5일 가장 여행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8~2019년 세대별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여행일수 격차를 비교하면, 청년층과 중년층보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차이가 약간 더 길었음
 - 2019년 기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장년층 1.3배, 노년층 1.2배로 약간 차이가 있음
 - 반면 청년층과 중년층은 1.1배 차이로 비슷한 수준임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을 비교해 보면 노년층·200만원대, 노년층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남
 - 2019년 기준, 노년·200만원대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0.5일로 3인 이상 가구 6.1일 보다 약 1.7배 긴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노년·300만원 이상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1.9일로 3인 이상 가구 8.3일 보다 약 1.4배 더 길었음

〈표 6-9〉 세대별·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청년 여행일수	13.5	14.8	12.3	15.2	14.5	13.3
100만원미만	9.9	8.1	32.4	14.3	34.3	10.4
100만원대	9.7	4.8	19.6	15.1	16.7	13.7
200만원대	14.1	13.0	12.2	14.9	14.9	12.3
300만원이상	14.9	15.3	12.2	16.3	14.1	13.3
중년 여행일수	14.0	13.3	16.4	14.1	16.1	15.2
100만원미만	4.7	0.0	0.0	10.2	0.0	9.5
100만원대	12.7	8.4	7.2	11.1	11.5	11.3
200만원대	13.3	12.7	16.2	14.3	13.7	13.3
300만원이상	15.0	13.5	16.4	14.8	16.9	15.4
장년 여행일수	12.2	12.1	13.5	10.9	12.1	13.7
100만원미만	8.8	1.7	2.0	8.3	7.5	13.8
100만원대	8.7	7.9	10.7	9.9	9.3	10.7
200만원대	12.9	11.6	11.1	10.1	11.0	10.6
300만원이상	17.1	13.2	13.6	14.3	13.2	13.9
노년 여행일수	6.5	7.3	7.0	7.3	8.9	8.0
100만원미만	4.9	4.8	17.6	6.5	7.5	8.9
100만원대	6.7	6.1	4.2	8.2	8.5	8.5
200만원대	8.8	8.5	4.4	10.5	9.4	6.1
300만원이상	17.2	9.3	7.7	11.9	10.6	8.3

참고: 가구원수·각 특성 별 해당 응답자를 대상

6) 도시규모별·가구소득별

- (세부특성별 현황) 2018~2019년 1인 가구의 도시규모·가구소득별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 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일수가 더 길게 나타남(〈표 6-10〉 참고)
 - 특히 2019년 기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1인가구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상 보다 여행일수가 2.3배로 대도시 1.7배 보다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특성 간 상대적 비교) 2019년 기준 여행일수는 중소도시·300만원 이상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고 중소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에서 가장 짧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는 중소도시·300만원 미만 1인 가구 17.4시간으로 중소도시·100만 미만 1인 가구 7.5시간 보다 2.3배 더 길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의 여행일수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100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 남
 - 2019년 기준, 대도시·1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은 7.5일로 다인 가구 16.3일 보다 약 2.2배가량 긴 것이 특징임

〈표 6-10〉 도시규모별·월평균가구소득별 평균 여행일수(단위: 일)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대도시 여행일수	11.5	10.3	13.0	11.6	11.1	13.0
100만원미만	6.1	3.3	15.4	7.5	7.9	16.3
100만원대	8.8	5.7	10.7	10.1	8.3	11.2
200만원대	12.5	10.0	12.5	13.4	10.6	10.9
300만원이상	14.9	12.6	13.0	13.2	12.8	13.1
중소도시 여행일수	11.5	10.7	14.3	12.7	13.4	14.8
100만원미만	3.8	5.0	14.3	7.5	9.4	7.1
100만원대	6.8	6.0	10.5	10.2	9.8	15.5
200만원대	14.0	9.7	13.7	14.9	12.3	12.6
300만원이상	15.6	13.4	14.4	17.4	15.8	15.0

구분	2018			2019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읍면 여행일수	9.3	10.0	12.9	10.4	10.0	13.0
100만원미만	6.0	4.8	16.6	7.7	6.4	10.3
100만원대	6.9	7.3	5.7	10.2	8.8	6.3
200만원대	12.9	10.6	10.1	11.7	9.4	10.6
300만원이상	16.9	13.2	13.3	17.3	12.2	13.4

제2절 여행일수 영향분석

- 앞선 여가시간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심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 1절에서는 1인 가구의 여행 현황분석을 위해, 여행일수의 변화와,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이어서 본 절에서는 현황분석에 이어 여행일수에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⁴⁵⁾
 - 분석을 위해 2018~2019 「국민여행조사」자료와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계적으로 매칭한 자료를 이용함
 - 본 절에서는 분석에 적합한 계량 분석 모형을 소개 한 뒤, 1인 가구의 특성별 영향,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추정 결과를 비교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1. 분석방법⁴⁶⁾

- 분석에 앞서 여행일수는 “0”에서 좌측절단(Left Censoring) 되어 관측되며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y_i^* = x_i' \beta + u_i, \quad i = 1, 2, \dots, n$$

$$y_i = \begin{cases} y_i^* & \text{if } y_i^* > 0 \\ 0 & \text{if } y_i^* \leq 0 \end{cases}$$

- 여기서 y_i 는 관찰되는 종속변수의 값이며 y_i^* 는 잠재적인 종속변수, x 는 여

4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의 추이나 각 특성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여행일 수 또한 계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46) 계량모형의 방법론은 Lee(2008)을 참고하여 서술함

행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u_i 는 오차항, β 는 추정할 모수 벡터임

- 이러한 좌측절단(Left Censoring)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빗 모형(Tobit Model) 통해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여행일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관찰되지 않고 모든 경우 다 “0”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OLS로 추정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움
- 토빗 모형의 계수 추정원리는 다음과 같음
 - 토빗 모형 추정 시 오차항의 동분산을($u \sim N(0, \sigma^2)$) 가정한다면 로그-우도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계수를 추정할 수 있음

$$\sum_i [(1 - d_i) \ln \left\{ 1 - \Phi \left(\frac{y_i - x'_i \beta}{\sigma} \right) \right\} + d_i \ln \left\{ \frac{1}{\sigma} \phi \left(\frac{y_i - x'_i \beta}{\sigma} \right) \right\}]$$

- 이때, 추정된 계수($\hat{\beta}$)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며, 양(+)이면 여행일수가 증가 반대로 음(-)인 경우 여행일수가 감소함을 의미함
- 이때, 변화에 대한 해석은 독립변수의 형태가 연속변수인지 또는 항목변수, 이진변수인지에 따라 달라짐
 - 첫째, 독립변수가 연속변수라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예.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여가시간의 변화로 해석
 - 둘째, 독립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이라면 (예. 기혼) 0에서 1로 변화 할 때, 여가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함
 - 셋째, 독립변수가 몇 가지 범주(Category)로 이루어진 경우(예. 도시규모)는 한 가지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바뀌었을 때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하게 됨⁴⁷⁾
-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였음⁴⁸⁾

47) 예를 들어, 도시규모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여가시간의 증가 혹은 감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2. 분석결과

- 여행일수 “영향”분석 또한 앞선 여가시간분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동일하게,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은 전체가구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다인 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1인 가구와 다인가구, 1인 가구의 특성별 추정 결과를 분석함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함
 - 특성별 분석을 위해서 앞서 사용한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월평균 가구소득 외, 여행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과 시간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함
 - 단, 비교를 위하여 가구원수 및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소득대별 위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
- 또한 ‘주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음⁴⁹⁾

가. 다인 가구와 비교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의 여행일수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일 때 보다 여행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음(〈표 6-11〉 참고)
 -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약 1.1일 여행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48) 계수추정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구한 후 이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 판단이 필요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분산 로보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음

49) 여가시간의 “영향분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는 각각 1.5%, 0.5%로 매우 작아 모수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

나. 특성별 분석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노년층이 청년층 보다 여행일수가 비교적 짧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미함
 - 남성의 경우, 여성 보다 여행일수가 1.3일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여행일수는 1.9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비교적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중년층, 장년층 또한 노년층에 비하여 여행일수가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또한 1인 가구 대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 보다 여행일수가 짧은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일 때 보다 여행 일수가 짧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여행일수가 각각 1.5일, 1.2일 길어짐
 -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여행일수가 1.8일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해당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대에 따라서 여행일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3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청년층이 노년층 보다 여행일수 0.1일 짧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음
 - 이는 1인 가구의 세대별 추정결과(청년층일 경우 노년층 보다 여행일 수 1.9일 증가)와 대비되는 결과임

다. 여가 참여 유형별 분석⁵⁰⁾

- (1인 가구 특성분석) 1인 가구는 여가 참여 유형에 따라 여행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인 가구 특성분석)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여행일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여행일수가 1.3일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다인 가구와 비교) 1인 가구와 달리,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에서는 “사회 및 기타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행일수가 비교적 길게 나타남
 - “사회 및 기타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여행일수가 0.2일 더 짧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한편 “사회 및 기타활동”을 주로 하는 3인 이상 가구는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여행일수는 1.5일 긴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활동에서는 1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6-11〉 여행일수 - Tobit 분석 결과

변수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
1인 가구	1.052** (0.523)	-	-	-
2인 가구	-0.328 (0.379)	-	-	-
남성	-0.521* (0.289)	-1.321** (0.589)	0.155 (0.498)	-0.481 (0.384)
청년층	1.411** (0.672)	1.854* (1.061)	4.047*** (1.163)	-0.011 (1.179)
중년층	1.392** (0.614)	1.251 (1.095)	1.793* (1.022)	0.279 (1.115)
장년층	0.198 (0.529)	0.217 (0.912)	1.134* (0.616)	-0.951 (1.095)

50)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 활동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대한 해석에 유의

변수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
고졸	3.699*** (0.429)	2.130** (0.940)	1.919*** (0.600)	5.295*** (0.718)
대졸이상	5.484*** (0.497)	4.518*** (1.117)	4.162*** (0.858)	6.828*** (0.758)
기혼	2.171*** (0.463)	1.499 (1.591)	1.867*** (0.717)	2.039*** (0.669)
직업있음	0.425 (0.334)	1.325 (0.888)	-0.407 (0.551)	0.399 (0.442)
대도시	0.382 (0.366)	1.541** (0.732)	0.523 (0.561)	0.139 (0.517)
중소도시	1.033*** (0.382)	1.234* (0.705)	1.622*** (0.599)	0.795 (0.538)
100만원대	0.379 (0.559)	2.170** (1.046)	0.105 (0.796)	-1.981 (2.134)
200만원대	1.077* (0.561)	0.678 (1.040)	1.468* (0.830)	0.162 (1.974)
300만원 이상	1.596*** (0.598)	1.768 (1.140)	1.764** (0.884)	0.633 (1.917)
문화예술활동	2.080 (1.365)	-1.127 (2.184)	4.635 (2.848)	1.609 (1.662)
스포츠활동	0.398 (0.549)	0.405 (1.182)	2.659* (1.398)	-0.0842 (0.650)
여행활동	-3.077* (1.702)	1.314 (4.272)	-0.971 (4.539)	-3.954** (1.901)
취미오락활동	-0.160 (0.363)	-0.0339 (0.745)	0.361 (0.724)	-0.247 (0.450)
사회활동 및 기타	1.114* (0.633)	-0.190 (1.142)	0.719 (1.088)	1.409* (0.826)
2019년	-0.556** (0.282)	0.559 (0.562)	0.315 (0.493)	-0.940** (0.370)
상수항	5.641*** (0.665)	5.945*** (0.592)	4.971*** (1.010)	6.953*** (2.050)
σ^2	232.8*** (5.465)	216.8*** (16.800)	204.6*** (11.040)	242.9*** (6.683)
사례수	19,755	3,948	4,919	10,888

참고 1.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 로버스트 표준오차.

참고 2. *** p<0.01, ** p<0.05, * p<0.1

제3절 소결

- 여행일수 또한 여가시간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1절 특성분석”과 “제2절 영향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1인 가구의 변화,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별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51)

1. 결과요약

- (1인 가구 변화) 2018년 ~ 2019년 동안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2018년 11.0일로 2019년 11.7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인 가구와 비교) 이는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행일수는 약 14일로, 1인 가구의 여행일수(약 12일)보다 약간 높음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여행일수가 약 1.1일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성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길지만 큰 차이가 없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남성 1인 가구는 12.8일로 여성 1인 가구 10.7일 보다 약 1.2배 길게 나타남
 - 한편,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남성이 여성 보다 여행일수가 1.3일 짧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51)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세부적인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결과 위주로 작성함

- (세대별) 1인 가구의 세대별 여행일수는 노년층이 다른 청년층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또한 이는 다른 특성에 비하여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임
 - 2019년 기준 노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7.3일로 청년 1인 가구(15.2일), 중년 1인 가구(14.1일)와 약 2배, 장년 1인 가구(10.9일)와 약 1.5배 차이
 - 또한 모든 요인을 통제한 경우,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여행일수는 1.9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여행 참여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3인 이상의 가구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임
- (도시규모별)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도시규모에 따라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2019년 기준 여행일수의 경우 대도시 1인 가구 11.6일, 읍면지역 1인 가구 10.4일로 차이가 크지 않음
 - 하지만 앞선 영향분석 결과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읍면 지역거주자 보다 여행일수가 1.5일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는 여행일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월평균 가구소득별) 1인 가구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일수가 가장 길고,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여행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2019년의 경우 1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7.6일로, 소득 300만원 이상 1인 가구는 15.1일로 2배 가량 차이 남
 - 하지만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보다 여행일수가 1.8일 길어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1인 가구 여가 참여 유형별 비교) 1인 가구의 주 여가활동에 따른 여행일수를 살펴보면, 휴식활동하는 경우 기타 활동에 비하여 비교적 짧게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반면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여행일수는 2018년 10.2일 2019년 10.6

- 일로 다른 활동에 비하여 짧게 나타남
- 하지만 “영향분석”결과에서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 주요특징

- 1인 가구의 여행일수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11일로 다인 가구와의 여행일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인 이상 가구의 여행일수는 약 14일로, 1인 가구의 여행일수(약 12일)보다 약간 높음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1인 가구의 경우 3인 이상의 가구 보다 약 1.1일 여행일수가 약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노년층, 읍면지역,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행일수가 비교적 짧게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세대별 영향을 크게 받음
 -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여행일수가 짧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여행 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임
 - 특히, 노년층의 여행일수가 청년층에 비해 짧았으며, 이는 다른 특성에 비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이 특징임
 - 또한 3인 이상의 다인 가구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다른 결과임
- 셋째,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휴식활동”에 주로 참여 할 때 보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취미오락, 스포츠관람 등)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여행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
 - 이는, 여행활동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휴식활동도 포함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들(예.레저 스포츠, 문화활동) 모두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측됨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제7장

결론 및 한계점

제1절 결론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가족구성의 형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경제, 사회, 복지, 주거 분야 외에 여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함
- 하지만 국내 가구 관련 정책은 여전히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 1인 가구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참여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화향유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를 분석에 사용함
 - 특히, 문화여가 및 여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매칭기법을 활용하여 각기 다른 세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 이를 분석에 활용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임
-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지표인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여행일수’의 변화추세와 다인가구와의 비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7-1> 참고)
- (변화추세) 1인 가구의 여가시간과 여행일수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비교적 크게 증가함
 -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은 평일 약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여행일수도 약 11일로 거의 변화 없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9년 66.6%로 2012년 대비 24.7%p증가한 가

운데 1인 가구 중 읍면지역(24.0%p)에서 크게 증가함

- (다인 가구와의 비교)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여가시간 더 긴 반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여행일수는 작음.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1인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8년 이후 약 60%대 이상을 기록하여, 2012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음 (21.9%p 차이)
 - 또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1인 가구 일 때, 3인 이상의 가구보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확률이 약 3%p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이는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3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취약함을 의미함
- (특성별 분석)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한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여행일수는 세대별 차이가 큼. 또한 이는 다인 가구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음
 - 1인 가구의 여가시간은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 소득”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이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 등 기타 활동의 상대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1인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취약한 가운데, “세대”에 따라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음
 - 1인 가구의 여행일수는 여성, 노년층, 읍면지역,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여행일수가 비교적 짧게 길게 나타나며, 특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마찬가지로 “세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의 참여 즉,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세대별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여가유형별 분석)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1인 가구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보다 여가시간은 짧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높음
 -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의 양 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7-1〉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분석 주요결과 요약

구분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여행일수
1인 가구 변화추세분석 (2012~2019)	비슷한 수준 유지	증가	비슷한 수준 유지
다인 가구와 비교 (2016~2019)	유의미한 차이 없음	다인 가구보다 낮은 수준	유의미한 차이 없음
1인 가구 특성별 분석 (2016~2019)	월평균 가구소득 영향이 큼	세대별 영향이 큼	세대별 영향이 큼
성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이 더 참여함	남성이 여성보다 짧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
세대별	청년층이 가장 짧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함	노년층이 가장 취약함
도시규모	유의미한 차이 없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대도시가 약간 더 길지만 큰 차이 없음
월평균 가구 소득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짧음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취약함	유의미한 차이 없음
여가유형별 분석 (2018~2019)	휴식활동을 주로하는 경우 비교적 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비교적 낮음	유의미한 차이 없음

제2절 한계점

-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와 이를 통계적으로 매칭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함
- 첫째, 세부 특성별 또는 여가활동별로 분석 할 경우, 유효표본수가 작아 대표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움
 -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세부 특성별 분석의 경우 1인 가구 특성에 따라 해당 표본을 세분화하였음⁵²⁾
 - 또한 주된 여가활동의 경우 1인 가구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과 여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매우 작음⁵³⁾
 - 즉, 표본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수추정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 분석의 경우 현황을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를 권장함
- 둘째, 분석 시 고려되어야할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여가시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별, 세대별, 도시규모, 월평균 가구소득도 외 근로시간 등 기타 활동시간 또한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해당 변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통제하지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석 시 누락변수에 의한 편의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됨
- 셋째, 영향분석 시, 주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활동, 여행일수는 동시관계(Simultaneous Relation)가 있으므로, 각 독립변수가 종

52) 대표적으로,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장년층·소득200만원대 1인 가구는 35명

53) 문화여가활동은 2018년 11명, 2019년 40명, 여행활동 2018년 5명, 2019년 7명

속변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계량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
-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인지, 그 영향이 얼마정도인지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본 분석에서 주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시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활동, 여행일수는 동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의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영향”이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수로 규모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별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본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소득을 범주화 하여 설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구원 수로 규모를 조정할 수 없음⁵⁴⁾
 - 예를 들어,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인 1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있다면 이들의 소득의 상대적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가참여의 변화추세와 다인가구와의 차이, 특성별 차이를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정책수립에 보다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54) 소득은 연속변수이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음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기획재정부(2020), 「1인 가구 증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향」.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행조사」.
- 박근화(2019),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미선·이재춘 외(2017),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미선·조윤지(2020),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 이민홍·전용호·김영선·강은나(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 Lee, M. J. (2009), *Micro-Econometrics: Methods of Moments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 논문

- 김현성·이기영·김강민·이교창·안준형·황재건(2019),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 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7(1), 73-94.
- 송완구·임지은·도해용(2015), 「1인 가구의 관광 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0(6), 193-216.
- 정영금·윤소영(2019),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지, 22(4), 1-15.
- 최셋별(2014),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

■ 통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행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여행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행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행조사」.
-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ABSTRACT

An Analysis of Culture, Leisure and Tour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results on policymaking related to cultural participation by analyzing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by single-person households. Statistics data from the National Culture and Arts Activity Surve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Survey, and National Travel Survey were used to analyze tourist and recreational particip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Criteria such as the amount of vacation days, recreational hours, and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degree of cultural enjoymen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mount of vacation days, and tourist and recreational hours differ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First,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from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over time. Although the amount of recreational hours and vacation days in single-person households remained relatively unchanged from 2012 to 2019, the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increased significantly. Single-person households spend an average of four hours on weekdays and six hours on holidays participating in recreational activities and had an average of 11 vacation days; however,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increased by 24.7% compared to 2012 to 66.6% in 2019. Second,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longer amounts of recreational time but lower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Although the participation rate of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by 21.9%

since 2018, the participation rate remains lower than multi-person households. If all conditions remain consistent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e particip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attending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is 3%p lower than multi-person households. Third, the data shows that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a single-person household, the participation rate of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and the number of days of travel vary great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The recreational time of a single-person household is most affected by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hich is typically seen in as women,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remain lower for these three groups despite them taking longer recreational time. This difference is due to working hour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In addition, the attendance rate is relatively affected by each generation. Fourth, the number of vacation day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s estimated to be the most affected by generation;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in viewing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Women, the elderly, urban households and low-income families showed lower numbers of vacation day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large generational gap in terms of more active and diverse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that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leisure activities. Last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shorter amounts of recreational time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than those who mostly participate in active recreational activities. The quality of leisure is more important than the amount of recreational hours when participating in active recreational activities. However,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attention is needed when interpreting because there is a lack of valid sample and bias due to missing variables.

Keywords

Culture, Leisure, Tour, Single-person Households, OSL, Probit, Tobit, Marginal Effect, Data Linkage, Exact Matching,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집필내역

연구책임

송정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임전문원: 연구총괄 제1장 ~ 제 7장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전문위원: 제3장 4절

공동연구

김희경 동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초빙교수 제 3

1인 가구의 문화·여가 및 여행 특성 심층 분석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50-8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4>

an Analysis of Culture, Leisure and Tour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4>

Song, Jeongyeon · Park, Kwenhwa

